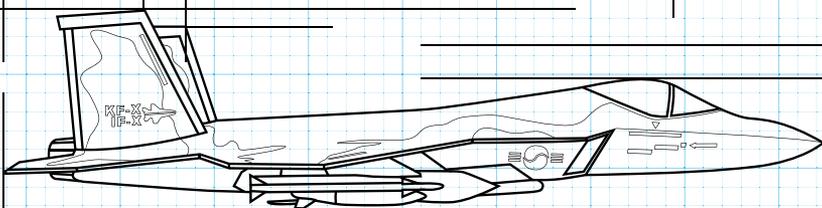


KF-X

since 2001





COVER STORY

KF-X 사업,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KF-X 사업을 아십니까? 요즘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뜨거운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 즉 F-X 사업은 대부분 아시리라 생각되지만,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 KF-X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손으로 전투기를 만들어 보자는 KF-X 사업은 항공산업과 국가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임에도 13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월간 「공군」의 7월호 기획특집은 KF-X 사업, 더 이상 미룰 수 없다입니다. KF-X 사업을 전혀 모르는 분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이번 기획을 통해 KF-X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군지 여름 개편
히트트랙
트렌드가 보인다
신설!!

2013년 7월호

VOL. 421

10 기획특집

내 이름은 KF-X,
빨리 날고 싶다!

28 인터뷰

영원한 빨간마후라
영화배우 신영균

32 히트트랙 돌잔치 MC 황어준 일병

40 공군문화유산 탐사기 보라매공원

46 담벼락 휴가

56 책마음 Now



08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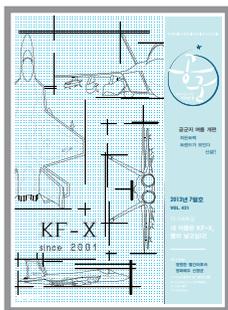
28



32



50



표지(앞) KF-X 형상을 도면화 해 표현한 일러스트 그림 | 상병 조기봉
 표지(커버스토리) KF-X 형상의 편대비행을 이미지화 한 일러스트 그림 | 상병 조기봉
 표지(뒤) 영화배우 신영균 사진 | 상사 김경률

발행일자 2013년 7월 3일(통권 제421호) 발행인 공군참모총장 대장 성일환 발행처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편집인 공군본부 정훈공보실장 준장 최영훈 편집감수 중령 권용은, 소령 천명녕
 기획·편집 대위 김나형, 상병 조기봉 디자인·인쇄 국군인쇄창(960-7443~7445, 042-550-7443~7445) ※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는 공군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CONTENTS

July 2013 Volume 421



• GLOBAL & INSIGHT

공군 IN Fitness	06	싱싱한 여름건강 관리법
Zoom IN 캡틴쿠	07	홍보대사 근황
Pioneers up Above	08	이용근

• 공군IN

기획특집	10	<0교시> 세계 각국의 독자 전투기 개발 계획
	12	<1교시> 내 이름은 KF-X, 빨리 날고 싶다!
	16	<2교시> ADD 이대열 박사와 함께하는 KF-X 키워드 학습
	18	<3교시> 공군본부 전력부장과 풀어보는 KF-X 진실 혹은 거짓
	20	<4교시> 와이파이 인터뷰, 왜 KF-X여야 하는가?
	22	<5교시> 국내 항공산업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KF-X
포토프레임@AF	24	참모총장 동정
AIR FORCE MONTHLY	26	6월 공군 소식
영화 같은 인터뷰	28	영화배우 신영균
히든트랙	32	돌잔치 MC 황어준 일병
Photo Sketch	34	C-130 플레어 투하
공군문화유산 답사기	40	보라매공원
생각하는 그림	44	세상에서 가장 멋진 프로레슬러
담벼락	46	휴가

•• CULTURE 36.5

트렌드가 보인다	48	올 여름 패션 제안
Hollywood English	50	론 레인저
Air-Supply	52	간첩 영화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고민
Preview	54	7월 문화공연/개봉영화

•• OPINION

책마을	56	Now
-----	----	-----

※ 스포츠 캘린더는 이번 호부터 폐지됩니다.
※ 나쁜군인(연재만화)은 매거진 블로그에서 지속 연재됩니다.



클
유현정
(비타민하우스
광고홍보팀장)



사진
이미지투데이

공군 IN Fitness

단백질 풍부히 섭취해야 여름을 이긴다



싱싱한 여름건강 관리법 여름건강 수호천사, **비타민**으로 체력보충!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시작되었다. 장마가 오고 난 후 더위가 시작되었던 예전과는 달리 요즘은 장마와 폭염이 함께 오는 경우가 늘고 있다. 습하고 무더위가 지속되면, 불쾌지수가 높아지고, 각종 스트레스와 함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다. 우리 몸은 봄에 움직였던 활발한 신체리듬에 가속이 붙어 인체 내의 신진대사도 사계절 중 가장 왕성해진다.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면서 신체 내 노폐물도 많아진다. 특히 더운 여름에는 땀과 함께 이 노폐물이 엄청난 양으로 늘어나 오장육부의 청소 기능이 전체적으로 가동된다. 때문에 체력소모가 증가하는 만큼 다시 신진대사가 왕성해져야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이 무더운 여름을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을까? 더욱 건강하게 여름을 나는 방법을 알아보자.

▶ 단백질을 지켜라

여름철 피곤과 무기력감의 원인은 단백질 부족 때문.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은 두유, 두부, 콩비지 등 콩으로 만든 음식으로, 특히 여름철 음식으로 콩국수가 제격. 메밀국수나 냉면도 여름철 인기 식품이지만 단백질 함유량이 적기 때문에 주식으로 먹는 것은 금물이다. 여름철 피로회복, 탈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단백질을 풍부히 섭취해야 한다. 보신탕이나 삼계탕 등 보양식도 사람들이 많이 찾는 여름철 먹거리. 하지만 단백질 가운데서도 동물성 지방이 많은 것은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

▶ 비타민, 무기질을 잡아라

비타민과 무기질도 많이 소모되는 영양분 가운데 하나. 땀을 통해 수분과 무기질, 수용성인 비타민B군과 비타민C 등이 배설되기 쉽다. 스트레스도 비타민B군과 비타민C를 소비하는 요인이 된다. 스트레스로 고통 받지 않기 위해서는 과일 등 비타민 섭취가 필수다.

수박은 약 90%가 수분이지만 비타민 B1-B2-C, 칼륨, 인, 아미노산 등을 함유하고 있다. 또 포도당의 원천인 당분을 포함하고 있어 피로회복에 도움이 된다. 참외 역시 여름철 탈진 예방에 그만이다. 비타민C의 함량이 높고 칼륨이 많아서 수박과 같은 이뇨작용을 한다. 열량도 100g당 26~31kcal로 낮은 편이다. 뿐만 아니라 “쿠쿨비타신”이라는 성분은 항암작용에도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포도는 자연 피로회복제. 인체에 흡수가 가장 빠른 포도당을 갖고 있다. 짙은맛을 내는 타닌은 바이러스나 충치,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또 검붉은 껍질속에 든 색소 안토시아닌은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아스피린보다 10배나 강한 소염작용을 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제철과일과 채소

뜨거운 여름 제철과일과 채소는 성질이 매우 시원하고, 수분, 전해질, 비타민 등이 풍부해 여름 건강에 제격이다.

- 비 오듯 땀을 흘려 체력 손실이 많은 사람 : 수박, 참외, 자두, 포도, 멜론, 토마토 등이 좋다.
- 평소 위장이 냉하고 배가 자주 아파서 설사가 잦은 사람 : 잘 익은 토마토, 껍질이 부드럽게 벗겨지는 복숭아, 바나나 등이 좋다.

▶ 물은 자주, 소금은 멀리

갈증은 단순히 입과 목구멍의 점막이 말라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신체조직에 수분이 결핍되어 생기는 현상이다. 갈증은 늦게 나타나서 빨리 사라지는 게 특성이다. 수분이 부족한 상태를 지나서 탈수상태에 이르러야 갈증이 나타나므로 그전에 물을 마셔야 한다. 땀으로 빠진 염분을 보충하기 위해 소금을 즐겨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상식이다. 땀을 흘리면 염분보다 수분이 더 많이 빠져나간다.



글
한우성
(재미 언론인)



⑦ 수천 년 한국사에서 우리 정부가 임명한 비행장교 1호가 된 역사적 인물

이우근

제 1 권



이용근(李用根: 1894~1950)은 일제강점기 미국에서 활약했던 독립운동가이자 조종사로서 1921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비행장교로 공식 임명, 수천 년 한국사에서 우리 정부가 임명한 비행장교 1호가 된 역사적 인물이다. 이용근은 평남 강서군 출신으로 송실중학과 평양 관립일어학교를 마친 후 조선에서 3년간 교편을 잡았으니 당시로서는 상당한 지식층이었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6년 미국으로 떠나 샌프란시스코에 첫발을 디뎠는데 잠시 후 대한국민회에 가입, 독립운동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듬해 로스앤젤레스로 옮겨 흥사단에 가입한 이용근은 다시 샌프란시스코로 거처를 옮겼는데 이곳에서 3·1운동 소식을 듣고 장병훈·이용선 등과 함께 청년혈성단을 조직했다. 장병훈·이용선과는 중국선박 오션차이나(Ocean China)호를 타고 태평양을 함께 건넌 사이였다. 이용근이 군사적 독립운동의 기치를 내건 청년혈성단을 결성하던 1919년 5월 조선에 있던 그의 피붙이들은 독립운동을 하다 체포돼 옥고를 치르고 생사조차 알 수 없게 됐다. “이용근 씨의 백부는 70노인으로 본래 교회에 열심히 종사하는 인물이며 백부와 숙부와 중형이 다 독립운동에 참여됨으로 5월 초에 체포되어 옥중에서 악형을 당하는 중 그 사생 존망을 아무도 아는 이가 없다 하니…(하략)….”(신한민보, 1919년 10월 2일) 이로부터 몇 달 후 이용근은 독립전쟁을 위해 조종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미국 민간비행학교인 레드우드비행학교에서 비행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가 25세가 되던 해였다. 이곳에서 이용선·이초·장병훈·최자남·한장호 등 한인청년들과 비행후련에 열중하던 이용근은 이듬해 2월 이곳을 답사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을 만나 그의 임시정부 비행학교/비행대 창설 결심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이날 노백린 군무총장과 이용근 등 한인청년 파일럿 지망생 6명은 모두 모자에서 신발에 이르기까지 완벽히 비행복을 착용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는데 이 사진은 1920년 4월 27일자 독립신문에 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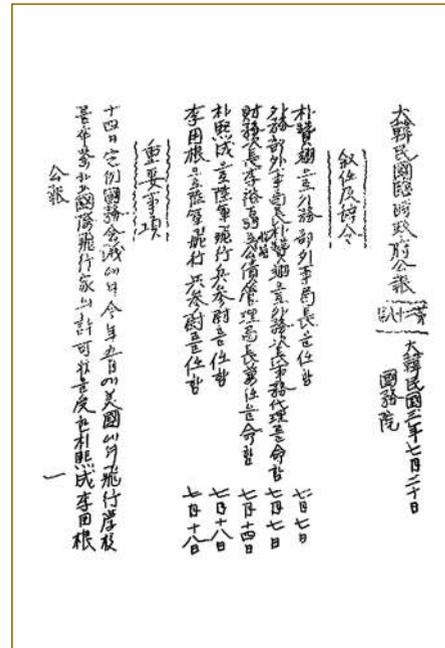


레니언비 비행학교를 설립하고
미국 조종사 자격시험에 통과해
임시정부 비행학교(이름없는)로 임명된다



이용근이 국제항공연맹으로부터 받은 조종사 자격증(1921년 7월 7일자)

돼 일제치하에서 신음하던 한국인들에게 커다란 희망과 용기를 줬다. 이용근이 레드우드비행학교를 졸업하던 모습 또한 당시 신문에 잘 기록돼 있다. “레드우드시티비행학교에 입학하여 천신만고의 침로를 익히거면서 공부하던 한장호·이용근·장병훈 3씨는 금월 17일에 비행술을 졸업하였는데 그 3씨의 인내력과 결심을 누가 아니 흠모하리만은 그들의 애국심은 가히 배울만하다. 생각건대 그들은 우리의 독립운동이 일어난 후에 원수 왜국을 소멸하는 데는 비행술이 아니면 능치 못하리라 하는 굳은 결심을 가졌도다. 우리 일반이 희망하는 것도 이에서 지나지 아니하다. 3씨의 목적하고 결심한 바를 성공할진저.”(신한민보, 1920년 6월 22일) 레드우드비행학교를 졸업한 이용근은 임시정부 비행학교/비행대에 합류했다. 수개월 후 이곳의 최대 재정후원자였던 김종림 선생의 농장이 폭풍우로 타격을 입고 비행학교/비행대가 휘청거리자, 이용근은 새크라멘토에 있던 미국 민간비행학교에서 훈련을 계속했다. 이용근은 박희성과 함께 1921년 5월 조종사 자격시험을 통과하고 파일럿이 됐다. 당시 조종사 자격시험은 3회 비행으로 이뤄져, 첫 1~2회째 비행은 매번 공중에서 ‘∞’ 모양을 5번 만든 다음 지상에 정해둔 표지로부터 약 46m 내에서 착륙해야 했으며, 마지막인 3회째 비행은 고도 약 117m에서 엔진을 끄고 활강비행으로 착륙해야 했다. 이용근과 박희성이 파일럿이 됐다는 보고를 받은 임시정부는 즉시 두 조종사를 ‘비행병 참위’로 임명했다. 1921년 7월 18일이었는데, 참위(參尉)는 대한제국군 계급으로 오늘날 소위에 해당한다. 두 사람이 국제항공연맹으로부터 조종사자격증을 받은 지 불과 11일 만이었으며, 이로써 수천 년 한국사에 걸쳐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임명한 ‘비행장교 1호’가 탄생했다. 임시정부는 박희성과 이용근을 비행장교로 임관시키면서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포상금도 주기로 결정했다. 두 조종사에 대한 임시정부의 공식적인 임관 및 포상 명령은 임시정부 공보 1921년 7월 20일자에 게재돼 있다. **AF**



임시정부 공보(1921. 7. 20)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용근과 박희성에 대한 1921년 7월 18일자 임관명령서. 이로써 수천 년 한국사에 걸쳐 우리 정부가 임명한 '비행장교 1호' 2명이 탄생했다. 1921년 7월 20일자 임시정부 공보에 게재돼 있다.



세계 각국의 독자 전투기 개발 계획

세계 각국에 공군이 있지만, 이 가운데 자국이 개발한 전투기를 사용하는 국가는 다섯 손가락 안에 들만큼 매우 적다. 그만큼 고성능의 전투기를 독자 개발한다는 것은 기술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 공군을 보더라도 국내에서 개발된 중등훈련기 KT-1과 초음속 고등훈련기 겸 경공격기인 T-50을 사용하고 있지만, 전투기만은 미국에서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선진국들의 차기 전투기 개발계획이 답보상태에 빠진 상황에 전투기 개발을 위한 계획들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KF-X 즉, 터키가 유사한 개발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1960년대 독자 전폭기를 개발한 인도

카레와 타지마할의 나라로 알려진 인도, 비록 국민소득은 우리나라보다 낮지만 항공우주기술은 아시아에서 손꼽히는 국가이다. 특히 지난 1960년대 초 HF-24 마루트(Marut) 전폭기를 독자 개발하는데 성공한다. HF-24 마루트 전폭기는 1971년 발발한 제3차 인도·파키스탄 전쟁 당시 실전에 참가해 파키스탄군을 공격하는데 사용되기도 했다. 하지만 HF-24 마루트 전폭기 개발 이후, 인도의 전투기 개발은 사실상 중지되고 소련과 프랑스의 전투기를 도입하게 된다. 그러나

1985년 당시 인도 총리 라자브 간디에 의해, 미국과 협력하여 신형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계획이 세워진다. LCA(Light Combat Aircraft) 즉 경전투기 개발계획은, 인도 공군이 운용 중인 미그(MiG)-21 전투기를 대체한다는 목표하에 1989년부터 본격화되었다.

천신만고 끝에 개발된 경전투기 테자스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미국과 프랑스의 항공기 제작사와 엔진 업체들이 경전투기 개발계획에 참여했지만, 개발이 지연되면



서 개발비가 폭등하기 시작했다. 또한 1998년 인도의 핵실험으로 인해, 미국은 인도에 각종 제재조치를 실시하였고 미국에서 도입될 예정이었던 엔진을 비롯한 주요 구성품들의 수입이 중단되었다. 각고의 노력 끝에 지난 2001년 1월 4일 LCA 시제기가 첫 비행에 성공한다. 하지만 2001년 9·11 테러 발생 이후, 미국의 대테러 외교 정책에 따라 인도에 가해졌던 각종 제재들은 해제되었고 엔진을 비롯한 각종 구성품의 인도 판매가 허용되면서 개발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된다. 테자스(Tejas) 즉 힌두어로 “빛”이라는 별칭을 가진 LCA는, 앞으로 200여대가 생산될 계획이며 인도 해·공군에 배치될 예정이다.

인도의 차세대 전투기 FGFA와 AMCA

테자스 경전투기 개발에 성공한 인도는 하이급과 미디엄급 전투기를, 2020년대 중반까지 국내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야심차게 추진 중에 있다. 하이급 전투기 개발계획은 FGFA(Fifth Generation Fighter Aircraft) 즉 “5세대 전투기”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07년 인도는 러시아와 FGFA 전투기의 개념연구에 들어갔고, 그 결과 러시아의 스텔스 전투기인 T-50 개발계획에 참여하기로 결정한다. PAK FA (Perspektivny Aviatsionny Kompleks Frontovoy Aviatsii) 즉 “전술공공용 미래형 전투기”란 이름을 가진 T-50 스텔스 전투기는 지난 2010년 1월 29일 첫 비행에 성공한 바 있다. 인도는 T-50 스텔스 전투기를 바탕으로 인도군의 요구사항에 맞게, 40여 개 항목의 성능을 향상시킬 예정이며 자국산 무장을 대폭 적용시킬 예정이다. 하지만 애초 200여 대를 도입하기로 했던 FGFA 전투기는 계속되는 개발비 상승으로 인해, 100여 대만 도입될 예정이다.

테자스 경전투기의 후속사업인 AMCA

이와 함께 테자스 경전투기의 후속사업으로 AMCA(Advanced Medium Combat Aircraft) 즉, 선진형 미디엄 전투기를 개발할 예정이다. 인도 해·공군의 차기 전투기로 개발 중인 AMCA는 인도의 ADA(Aeronautical Development Agency) 주축으로 개발이 진행 중에 있으며, 지난 2월 인디아 에어쇼에서 1:8 크기의 모형이 공개되었다. AMCA의 기체 외형은 스텔스성을 감안해 설계되었으며, 테자스 전투기 용으로 개발이 진행 중인 GTX-35VS 카베리(Kaveri) 엔진 2기를 장착할 예정이다. 다목적 전투기로 개발 중인 AMCA

는 최대 비행속도는 마하 1.8, 항속거리는 1,000km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만약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20년 시제기의 첫 비행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2025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슬람을 대표하는 항공선진국 터키

동·서양의 교차점에 위치한 국가 터키, 한국전쟁 당시 참전하였고 돌궐의 후예라는 측면에서 형제의 국가로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터키는 이슬람 국가 가운데 항공기술이 가장 발전된 나라이다. 터키의 대표적인 항공기 제작사인 TAI (Turkish Aerospace Industries) 즉, 터키항공산업은 지난 1984년부터 터키 공군의 F-16 전투기를 면허생산하기 시작했으며, 지금까지 총 230여대가 생산되었다. 이밖에 이집트 공군의 F-16 전투기 40여대도 생산하였으며, 터키와 요르단 그리고 파키스탄 공군의 F-16 전투기를 업그레이드 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지난 2006년부터는 우리 공군이 운용 중인 KT-1 중등훈련기와 유사한 성능을 가진 휴르쿠스(HURKUS) 훈련기를 독자 개발하고 있다.

터키 공군의 F-16 전투기를 대체할 TF-X

휴르쿠스 훈련기에 이어 터키는 독자적인 차기 전투기 개발 계획인 TF-X를 추진 중에 있다. 지난 2010년 12월 15일 결정된 TF-X 계획은 터키 공군이 운용 중인 F-16 전투기를 대체하면서, 향후 도입할 F-35 전투기 상호 운용성을 갖도록 개발될 예정이다. 참고로 터키는 F-35 전투기 개발계획의 레벨 3 파트너 국가이며, 지난 2012년 2월에는 터키 국방 장관이 F-35A 전투기 100대를 구매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TF-X는 스텔스 성능을 가진 전투기로 개발될 예정이며, 레이더를 비롯한 각종 항공전자장비는 국내업체가 개발할 계획이다. 그러나 엔진의 경우 터키는 F-35 전투기에 장착된 F135 엔진이 장착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미국의 수출허가(E/L) 문제를 염두해 미 GEAE사의 F110-GE-132 엔진 혹은 유로젯(Eurojet)사의 EJ230 엔진의 장착도 고려하고 있다. TF-X의 개발은 TAI사가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3월에는 스웨덴의 사브(SAAB)사와 TF-X 개발에 필요한 기술 및 디자인 지원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터키 공군은 2020년대 중에 250여대 이상의 TF-X 전투기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F**



1교시

내 이름은 KF-X, 빨리 날고 싶다!

❖ 단 원 명 : KF-X 입문편
❖ 학습목표 : KF-X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해한다.



Special Theme



이게 김대중 대통령때, 2001년 공군사관학교 49기 졸업식에서 발표한 사업이야.

에~늦어도~ 2015년까지는 최신에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겠습니다.

오! 2015년이면 이제 거의 완성되었겠네요?



완성은 무슨. 아직 시작도 못 했음.

그때 졸업생들이 벌써 소령이라니 참 세월이 우수와 같구먼.

뭐 정부도 계속 바뀌고, 경제도 안 좋고, -해서 계속 사업 타당성 검토만 하면서 결정을 미뤄온거지.

뭔 종갓집 간장인가?! 계속 묵히게?

음, 아직 멀었어.

KF-X완성보다 동기중에 4성장군 나오는 게 더 빠르겠다...



에잉! 우리 손으로 F-35같은 최첨단 전투기쯤 만들어 보겠다는데 시간을 너무 끄는구만!

아니, 그건 아닌게- 우리가 F-35같은 5세대 최신 전투기를 만들 기술은 아직 없고-

그보다 한 단계 아래. 공군의 허리 역할을 하는 미디엄급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이 KF-X사업의 취지다.

미디엄? 스테이크?

High
Medium
Low

모든 전투기를 다 최신형으로 갖출 수는 없고, 하이·미디엄·로우 - 3체급으로 나눠서 각각 임무에 맞는 수준의 전투기를 효율적으로 운용하자는 거임.



Special Theme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하면 되지 않나요?

그 탐색개발에 인도네시아도 110억원을 투입했음.

뭐, 공군이 전투기를 확보하는 데는 한끼 식사를 해결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

배달시켜 먹듯이 그냥 통째로 직수입하는 방법이 있고

움직이기 귀찮아.

냉동식품 돌리듯 외국제품을 적당히 개조개발할 수도 있고

게참부려 먹어야징~

직접 레시피를 짜고 재료를 조달해 요리해 먹듯, KF-X사업으로 국산 전투기를 만들어 쓸 수도 있지.

내 입맛은 내가 제일 잘 알징~

자쓰가리우것든만가리오

우리 기술로 국산 전투기를 만든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이정표가 되니까!!

그 중 KF-X를 선호할 만한 이유라면?

기술파급효과 고용효과도 높다는 분석이고!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 빨리 보고 싶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건 공군의 전력 공백을 막아야 한다는 거임! 결정이 늦어질수록 우리 하늘을 받치고 있는 기둥이 약해지게 된다고!

이제 KF-X가 뭔지 알았으면 친구들한테 아는 척해도 된다.



2교시



ADD 이대열 박사와 함께하는 KF-X '키워드' 학습

- ❖ 단 원 명 : KF-X 기초편
- ❖ 학습목표 : KF-X 탐색개발 결과에 대해 이해한다.

필수 암기 키워드 : 탐색개발, Medium급, C103/C203, TRL 6, 기술소유권, 기술실증기, 60조원, KT-1/T-50

1교시에서 만화를 통해 KF-X 사업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를 마치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KF-X 사업을 본격적으로 알아볼 시간입니다. 보다 전문적인 강의를 위해 KF-X 탐색개발을 주도했던 국방과학연구소(ADD) 이대열 박사님을 모셔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키워드 학습을 해볼 건데요, 앞서 제시된 키워드들을 풀이해 보며 KF-X 탐색개발 결과에 대해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시작합니다.

KF-X 사업, 준비는 끝났다

탐색개발

[이대열 박사] 먼저 탐색개발의 개념을 이해하고 시작해야겠군요. 이를 위해 연구개발을 위한 무기체계 획득의 주요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무기체계 획득은 소요제기 → 선행연구 및 타당성 검토 → 탐색개발 → 체계개발 → 시험평가 → 양산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탐색개발은 사업추진 기본전략에 맞춰 체계개발을 준비하는 단계인 것이죠. KF-X 사업에 대한 탐색개발은 ADD 주관으로 지난 2011년 6월부터 1년 6개월간 440억 원이 투입되어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인도네시아도 110억 원을 투자해 함께 개발에 참여하였습니다.

Medium급

[이대열 박사] 공군의 ROC¹⁾를 기초로 KF-X 탐색개발에서 전제한 전투기의 성능 수준은 Med' 급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FA-50(Low급)보다는 좋고 F-15K(High급)보다는 떨어지는 수준이라는 의미죠. 앞서 만화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하이급 전투기는 구매하고, 미디엄급 전투기는 자체 개발한다는 사업추진 전략에 맞춰 설계된 성능 수준입니다. 여기에는 시장성도 고려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전문 용역업체인 영국의 SDI社와 미국의 Jane's사의 시장성 분석 결과도 수출 가능성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1) ROC : 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 작전운용성능



Special Theme

C103/203

[이대열 박사] 이번엔 형상 개발 결과를 좀 소개드려야겠군요. 이번 탐색개발에서는 총 2가지 형상이 개발되었습니다. 한 가지는 미국타입의 C103이고, 다른 하나는 유럽타입의 C203입니다. 형상을 두 가지로 개발한 이유는 F-X 사업과 연관이 됩니다. F-X 사업에서 어떤 기종이 선정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절충교역을 염두에 두고 두 가지 스타일로 형상을 개발해 둔 것입니다. C103/203의 주요 설계 특징으로는 제한적 스텔스 성능 및 향상된 공력 특성을 적용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TRL 6

[이대열 박사] TRL이라는 것은 기술성숙도(Technology Readiness Level)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1~9로 측정하게 되는데, TRL 6 이상이 되면 연구 개발 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우리는 KF-X 체계 개발에 필요한 세부 기술을 비행체 설계, 구조, 추진, 항공전자, 시험평가, 군수지원 등 총 432개로 분류했고, 이 중 총 384개의 기술을 TRL 6 이상으로 평가했습니다. 90%에 달하는 기술을 국내에서 연구개발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충분히 우리 기술력으로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는 것이죠.

기술소유권

[이대열 박사] KF-X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기술소유권입니다. T-50이 우리가 만든 초음속기 이긴 합니까만 외국업체가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소유권을 가지고 있죠. 업체 승인 없이는 우리 상황에 맞게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수출할 때는 로열티도 줘야 합니다. 그때 (T-50을 개발할 당시)는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모르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학습비를 냈는데 또 낼 필요 있겠습니까? 우리 모델 형상으로 우리가 설계해서 만들면 됩니다. 우리가 기술소유권을 갖자는 겁니다.

기술실증기

[이대열 박사] KF-X 사업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기술실증기²⁾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국산무장 또는 국산장비를 쉽게 장착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공무장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을 다 가지고 있어요. 최초의 국산 항공무장(KGGB)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KGGB를 장착하면서 전투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손대지 않았어요. 우리 항공기가 아니기 때문에 생산국의 인증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종사가 직접 허벅지에 단말기를 차고 무선데이터 통신을 합니다. 이게 세계 최초로 시도된 방식이라 특히 신청도 했습니다만, 우리 항공기가 있었다면 이럴 필요가 없었겠죠. 공대공이나 공대지 무장을 5년이면 충분히 우리 기술로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KF-X가 양산될 쯤에는 무장 개발이 완료되는 거죠. 우리 전투기에 우리 무장을 장착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또 기술실증기 역할을 해서 항공무장, 레이더 등의 국산화에 지속적인 발전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2) 새로운 기술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작하는 실험기



60조 원

[이대열 박사] 우리는 KF-X 국내개발에 대한 경제성 분석과 산업 및 기술파급효과 분석도 마쳤습니다. 물론 외부 용역을 통해서였죠. 분석결과에 따르면 국내개발이 직구매보다 5조 원 이상의 경제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산업파급효과와 기술파급효과는 약 60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국내 항공산업 전반에 엄청난 상승효과를 주는 것이죠. 영국의 유명 에이전시인 SDI, 미국의 Janes의 분석에 따르면 시장성도 충분합니다. 저희는 208~676대까지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창조경제를 위한 성장동력 산업이 되는 겁니다.

KT-1/T-50

[이대열 박사] 우리는 KT-1과 T-50을 성공적으로 개발한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항공분야에 쏟아부은 예산만 해도 6조 원에 달하죠. 사실 이것은 전투기 개발을 위해서 투자한 비용으로 봐야 합니다. 기술에는 점프가 없습니다. 지금 전투기를 개발하지 못하면 우리 기술은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뒤처지면 다시는 못 따라갑니다. 공든탑이 하루 아침에 무너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이 좋은 기회입니다. 잠재 성장력이 있는 인도네시아가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군이 국산 전투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공군이 원하는 우리 영공을 우리 전투기로 지키고 싶은 젊은 조종사의 꿈이 있는 한 KF-X 사업은 반드시 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KF-X체계 개발을 착수해야 할 시기입니다. **AF**



3교시

공군본부 전력기획참모부장과 함께 풀어보는 KF-X ‘진실 혹은 거짓’



- ❖ 단 원 명 : KF-X 심화편
- ❖ 학습목표 : 공군의 현재 전력상황과 KF-X 사업의 필요성을 정확하게 이해한다.

이번 시간은 KF-X 사업에 대해 좀 더 심도 깊게 알아보겠습니다. KF-X 사업에 대한 다양한 명제들을 공군의 입장에서 풀어볼 텐데요. 핵심적인 내용만 콕콕 짚어서 속성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초빙강사는 공군의 전력사업을 총괄하고 계신 공군본부 전력기획참모부장 정석환 소장님입니다. KF-X 사업에 대해 잘못된 오해를 풀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풀 준비하셨으면, 지금 출발합니다.

KF-X 사업, 제대로 알자!

1. 향후 공군의 전투기 숫자는 점차 늘어날 것이다?

정답:
아니다

[전력부장]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 공군은 580여 대의 재래식 전투기 위주로 운영하고 있었지요. 이러한 전투기 구조를 미래전 양상에 부합하는 질적 위주의 첨단 전투기 구조로 변화시켜 운영대수를 430여 대 수준으로 감소시켜 운영하겠다는 개념으로 전투기 전력구조변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전투기 대수 변화는 F-X 사업과 KF-X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때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현재 F-4, F-5 전투기의 도태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신규 도입예정인 F-X와 KF-X가 지연되고 있어 금년도부터 유지목표 대수보다 많은 전투기 수가 부족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향후 약 10여 년간 지속될 것입니다. KF-X 사업의 빠른 착수가 매우 절실한 이유입니다.

2. KF-X의 사업추진 방안은 결정되었다?

정답:
검토중이다

[전력부장] KF-X 사업은 이미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신규개발 형상에 대한 탐색개발을 종료하고 체계개발로 돌입해야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작년도 타당성 조사를 시행한 한국국방연구원 측에서 신규개발 방안은 위험요소가 크다며 기존에 개발되어 운용하는 검증된 항공기를 개조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올해 다시 사업타당성과 획득방식에 대해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

KF-X 사업타당성 검토현황

횟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연도	2003년	2006년	2007년	2009년	2012년	2013년
기관	KIDA	KIDA	KIDA	건국대	KIDA	KSTEP
결과	미흡	국제공동개발 추진	미흡	신규개발 타당	미흡(개조개발추진)	수행중

(A) 먼저 T-50를 운영하고 있는 1전투비행단으로 가보겠습니다. 승상사님 나와 개신가요?
 (B) 승정원 승사) 네 안녕하세요? T-50 정비기
 장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승정원 승사입니다.
 (A) 현장에서 느끼시기에 국내개발 항공기인가
 장 큰 장점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B) 승정원 승사)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저는 정비사들의 고품격 측면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조금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작구때 항공기량은 경우는 기
 본적으로 기종도서(T.O)가 영문으로 되어 있어서 전문적으로



(A) 네,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중요할 부분일 수 있
 죠. 또 다른 장점을 좀 찾아면 뭐가 있을까요?
 (B) 승정원 승사) 또 다른 장점으로서는 제작사(KAI)
 와의 유기적인 협조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결합이 튼
 섯했음 때 함께 고장연구를 통해 원인을 좀 더 빨리 찾
 아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좀 더 높은 수준의 기동률
 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국산항공기가 정비용사에게도 중요하다

어느 몇 달씩 내 번째 시간입니다. 이론만 완벽하다고 해서 제대로 KF-X 사업을 언더그라운드 할 수는 없겠죠? 이 시간에는 현장실습을 떠나보
 겠습니다. 국산항공기를 정비하고 있는 정비기장 두 분과 KF-X 탐색개발에 참여한 KAI/LIG 넥스원 관계자를 원격으로 만나 물 건네
 요. 이 끝을 이야기하기를 통해 KF-X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 논리가 더 명확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화이피어 인터뷰, 지금 연결합니다.

국산항공기 육성 건 현장에 있는 우리가 제임자야!

화이피어 인터뷰

단원명 : KF-X 육성반

화이피어 인터뷰, 왜 KF-X야 하는가?

화이피어 인터뷰를 통해 KF-X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들어본다.

4교시

사건
 3월/14
 윤문복
 이미지
 (윤문복)
 윤문복
 윤문복

윤문복
 김문복
 김문복
 김문복



Special Theme

KAI-공군 파트너십, 군수 지원 속도 높였다

(AF) 네 그렇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KT-1을 운영하는 3훈련비행단으로 가보겠습니다.

(3훈련비 유동철 원사) 안녕하세요? 3훈련비에서 KT-1을 정비하고 있는 유동철 원사입니다.

(AF) 앞서 송 상사님께서 국산항공기의 장점에 대해 설명을 해 주셨는데, 군수지원 측면에서 KT-1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입니까?

(3훈련비 유동철 원사) 무엇보다 종합군수지원 즉 기술 지원이나 수리부속들이 빨리 지원된다는 점이죠. 저는 KT-1을 정비하기 전에 T-37을 정비했었는데, 직구매 항공기 이다 보니까 제작사에서 수리부속이 도착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



는 경우가 많았어요. KT-1은 제작사(KAI)가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기술지원과 군수지원 협력이 바로 이루어지므로 훨씬 정비하기가 수월합니다.

(AF) 정비기량 측면에서는 어떤 점이 도움이 되나요?

(3훈련비 유동철 원사) KT-1이 도입되고 나서는 제작사(KAI), 협력사들과 워크숍을 많이 했습니다. T-37 때는 회의 같은 것조차 없었던거예요. 제작사와 대화가 많은 만큼 서로 정보 공유가 많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정비 신뢰성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제작사(KAI)는 운영 군에서 제공하는 정비 노하우를 바탕으로 부품 국산화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는 등 서로 Win-Win 하는 관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KAI, “KF-X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AF) KAI에서도 나와 계신데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요?

(KAI 배도한 부장) 네, KAI 대외협력실 배도한 부장입니다. 유 원사님 이야기에 제가 한 말씀 보낼까 합니다. KT-1의 경우 국내 최초 개발이라 리스크도 많았지만, 공군 군수사령부와 3훈련비행단, KAI와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바탕이 되어 항공기 조기 안정화와 높은 가동률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10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두 기관의 파트너십은 서로의 눈빛, 목소리만 들어도 이해하는 수준으로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AF) 업체 입장에서 보실 때, 국내개발 항공기가 어떤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KAI 배도한 부장) 가장 큰 부분은 대외 의존에서 탈피해 자주적인 군사력 건설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국산항공기는 우리 조종사 체형에 맞는 항공기 설계와 생산, 또 한국지형과 작전환경에 적합한 임무·무장능력을 장착하고 있어 최적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봅니다.

(AF) KF-X 사업이 추진되기 위한 KAI의 추진전략이 있으신가요?

(KAI 배도한 부장) KAI는 금번 KF-X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려고 합니다. 국내 기술소유권 확보, ROC 충족, 운용유지 및 미래발전 잠재력이 확보되도록 개발방안을 마련하고, 그 계획을 구체화해서 체계개발 타당성 검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LIG 넥스원, “AESA 레이더 국내개발 가능”

(AF) 네 KAI 측 말씀 잘 들었습니다. KF-X 사업에 대한 자신감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또 이 자리에는 탐색개발에 참여했던 또 다른 업체인 LIG 넥스원 홍보팀 관계자도 나와계시네요.

(LIG 넥스원 염철문 팀장) 네 안녕하세요. LIG 넥스원 염철문입니다.

(AF) LIG 넥스원은 이번 탐색개발에서 어떤 역할을 맡으셨나요?

(LIG 넥스원 염철문 팀장) 저희 LIG 넥스원은 탐색개발 기간 동안 항공전투체계 요구도 및 규격서 개발, 체계개발 계획 수립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다만, 탐색개발이 종료되고 곧바로 체계개발이 연결되었다면 사업연계성이나 전력화 시점을 고려했을 때 체계개발에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희 LIG 넥스원의 모든 임직원들은 KF-X의 성공적인 체계 개발을 기원합니다.



와 공대공/공대지 무장개발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특히 KF-X의 국산무장 운용을 위해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과 AIM-9X급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할 계획이며, E/L 획득을 위해 해외업체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생각입니다.

(AF) 이번 KF-X 사업에 AESA 레이더의 국내 개발 가능여부도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어떻게 예상하시니까?

(LIG 넥스원 염철문 팀장) 저희 LIG 넥스원은 AESA 레이더 하드웨어 개발 기술을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거나 경험이 없는 일부 알고리즘, S/W 및 비행시험 등의 분야에 대해서 체계개발 기간 중 해외기술협력을 병행 추진하고, 이를 통해 위험요소를 제거하면 KF-X 개발일정 내 국내 개발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AF)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1비와 3훈련비, KAI와 LIG 넥스원을 연결해 KF-X 사업 추진 전략과 국산항공기의 장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마지막 시간으로 ‘국내 항공 산업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KF-X’라는 주제로 조진수 한양대학교 교수의 강연이 이어지겠습니다. **AF**

(AF) KF-X 사업이 추진되면 LIG 넥스원은 어떤 분야에 참여하실 계획이신가요?

(LIG 넥스원 염철문 팀장) LIG 넥스원은 항공전투체계의 전 분야



5교시

❖ 단 원 명 : KF-X 총정리

❖ 학습목표 : KF-X 사업이 국내 항공산업과 국가발전에 미칠 영향을 이해한다.

“국내 항공산업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KF-X’!”

1975년 고 박정희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자주국방을 위해 우리도 80년대 중반엔 최신에 전투기를 생산할 것”이라고 선언한 후 1982년 우리나라 최초의 조립 전투기인 ‘제공호(制空號)’가 탄생했다. 당시 서울 대방동에 위치했던 공군사관학교에서 항공공학과 교관으로 미국의 주력 전투기인 F-16의 CCV(Control Configured Vehicle), FBW(Fly-By-Wire) 등 최첨단 기능들에 대해서 생도들에게 설명하던 필자는 언젠가는 우리도 최신 전투기를 직접 설계해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F-5 제공호 탄생 후 20년이 지난 2002년 8월 20일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한 우리나라 최초의 초음속 훈련기인 ‘T-50’의 처녀 비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외국기술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우리나라는 아음속 비행기와는 차원이 다른 고도 기술들의 집약체인 초음속 항공기의 세계 12번째 ‘고유모델’ 생산국이 된 것이다.

T-50의 개발 성공에 이어서 당장 노후된 F-4, F-5와 10년 후 퇴역을 시작할 F-16 전투기를 대체해야 하는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개발사업(KF-X, 일명 보라매 사업)이 태동되는 듯 했으나 거의 10년 동안 4번에 거친 타당성 검토만 하고 있었다. 다행히 2010년 이명박 정부는 한국형 전투기(KF-X), 공격헬기(KAH) 등 군용기와 민항기(民航機)의 개발을 추진한다는 ‘항공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Special Theme



항공산업을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현재 19억 달러에 불과한 항공산업의 생산규모를 2020년까지 10배인 200억 달러(약 23조 원)로 확대해 현재 세계 15위권인 항공산업 수준을 G7으로 올려놓는다는 계획이었다. 이의 결과로 10년 뒤에는 항공산업 수출 100억 달러, 항공기업 300곳 육성, 고급 일자리 7만 개를 창출한다는 야심찬 비전을 선보였다.

이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ADD)는 2011년부터 2년간 550억 원의 예산으로 200여 명의 연구진이 인도네시아에서 파견된 엔지니어들과 함께 공동연구개발센터(CRDC)를 운영하며 KF-X 탐색개발을 주도했다. 그 결과 KF-X를 국내 개발할 경우 6조 원 개발비 포함 LCC(Life Cycle Cost: 총 수명 주기비용)가 약 23조 원으로 해외 직구입 대비 5조 원을 절약할 수 있고 우리 공군이 원하는 KF-X를 개발할 수 있는 우리 기술 수준이 선진국의 90%에 달하기 때문에 본 개발을 시작해야 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또한, 군용항공기 장기발전계획(기본훈련기 → 고등훈련기 → 전투기 → 무인전투기)에 따라 축적된 개발기술을 활용할 최적의 시기이며 60조 원대의 기술/산업 파급효과와 최소 4만 명의 고용 유발 효과도 기대된다고 예측했다. KF-X와 같은 최신 전투기는 족집게 공격을 할 수 있는 유도 무기체계와 탐지(레이더) 및 저피탐지(스텔스)성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개발 성공은 ICT(정보통신기술)와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 및 접목도 수반하게 된다. 수요처인 대한민국 공군도 KF-X 국내 신규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2012년 5차 타당성 검토를 다시 의뢰받은 A기관은 “비용과다, 기술력 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본 개발 착수의 발목을 잡고 있다. T-50을 개조 개발하면 된다는 논리도 있으나 공군은 4.5세대급의 전투기를 원하고 있어 이는 불가능하다고 보인다. 또한 40여 년 전에 기본 설계된 F-16이나 F-18의 플랫폼을 들여와 개조하는 것이 비용도 줄이고 성공 확률이 높다는 논리도 펴고 있으나 이 경우 구형 기체에 대한 첨단 신기술 적용이 어렵고 태생적 한계로 결국 기술 소유권을 플랫폼 원제작사가 갖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항공산업은 선진국들이 핵심 기술 이전을 기피하며 초기 투자비용이 과다하고 규모의 경제가 중요하며, 투자회수 기간이 길고 수출진입 장벽이 높은 산업이지만 최첨단 시스템 종합산업으로 우리가 반드시 넘어가야 할 산봉우리와도 같다. 전자, 자동차 등은 자동화된 장치 산업으로 생산 규모 대비 고용창출이 계속 줄어가지만 항공산업은 전수(全數) 고급 연구 및 생산 인력에 의해 만들어지므로 고용효과가 매우 크다. 따라서 현 정부가 추구하는 복지국가의 바탕이 될 산업이다.

한국이 세계 제5위 자동차 대국이 된 것은 ‘포니’가 수출 가능한 ‘한국고유 모델’이었기 때문이다. 즉 수출을 위해서도 KF-X는 우리 고유 모델로 개발해야 된다. 더구나 전시(戰時)에는 예기치 않던 부품이 망가져 출격을 못 할 수도 있으므로 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우리 전투기’가 되어야 한다. 신규 전투기는 획득 비용보다 LCC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이제는 반드시 우리 손으로 전투기를 만들어야 한다.

항공기 엔지니어의 입장에서 볼 때에 첨단 전투기는 구형 전투기의 개조 개발보다는 현재에 가능한 기술력을 총동원해서 새로운 설계를 해야 향후 40여 년간 사용할 수 있다. 모자라는 첨단 기술은 ‘국제 협력선’을 찾아 해결하고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외국 Risc Sharing Partner(개발 위험 분담 공동 개발국)를 참여시켜 KF-X의 국제화는 물론 수출도 동시에 도모해야 한다.

현재 KT-1 및 T-50 훈련기를 제외한 우리 군의 주력 항공기는 전부 외국에서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다. 외국 제품이다 보니 항공기 가동률을 지키기 위한 “부품 돌려막기” 등의 폐해와 최근 도입한 F-15K의 유지보수 비용 상승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이는 ‘외국산’ 자동차 구입자들이 비싼 수리비 및 부품 공급 부족에 의해 고통받는 것과 같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설사 예상보다 개발 비용이 더 들어가고 현재 우리 기술력이 딸리더라도 KF-X는 ‘국내주도 국제 공동개발’ 형태로 우리가 개발하여 공군이 편안하고 저렴한 유지보수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국가 첨단 기술력 향상뿐 아니라 항공 산업의 근간이 되는 항공부품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는 필자와 같은 항공엔지니어들과 전투 조종사들의 염원과 확신이기도 하다. **AF**





글
대위 김나청
(공군본부
미디어영상팀)

사진
공군본부
비서실



오늘만큼은 내가 주인공!

지난 6월 4일 교육사령부에서 제130기 공군학사장교 임관식이 열렸습니다. 참모총장은 임관자 가족과 함께 새롭게 군문을 내딛는 신임장교들을 격려했습니다. 참모총장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기념 촬영하는 여군 소위의 표정이 너무나 행복해 보입니다. 그동안 힘든 훈련에 수고 많았습니다.

“북한 도발 가능성에 항시 대비할 것”



지난 6월 10일 공군 지휘관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모총장은 “대비태세 강화기간 동안 주어진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준 공군 전 장병과 군무원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격려했으며, “항상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실전적인 교육훈련과 현장중심의 피드백을 통해 안정적으로 부대를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로서 끊임없이 노력해 달라”



참모총장은 지난 6월 5일 공군 주임원사 이·취임식을 주관했습니다. 그간 공군 주임원사의 임무를 수행한 배해도 원사는 이임했으며, 신임 공군 주임원사로 이정열 원사가 취임했습니다. 참모총장은 이 자리에서 “부사관은 군사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가”라고 강조하고 “군의 실무를 담당하는 간부로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 습득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AF**



AIR FORCE MONTHLY

July.2013

MONTHLY MAGAZINE VOL.421

www.airforce.mil.kr



블랙이글, 해운대 상공 에어쇼 펼쳐 무더위의 날려버린 환상적인 공연

지난 6월 8일과 9일,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이 2013년 해운대 해수욕장 개장과 모래축제를 축하하는 에어쇼를 펼쳤다. 때 이른 더위로 해운대를 찾았던 70만 명의 관객들은 블랙이글의 깜짝공연에 무더위를 잊은 채 탄성과 박수를 연발했다.



공군 3대에 머느리까지, 76년 공군에 바친 가족 화제
“공군 제복을 대물림하는 것은 일가의 영광입니다”

76년을 공군에 바친 가족이 화제다. 주인공은 33년의 군복무를 마치고 지난 5월 30일 전역한 권재원(예) 대령 가족. 권 대령의 아버지 권삼성 예비역 중위 또한 준사관 15기로 33년을 공군에서 복무했으며, 권 대령의 아들과 머느리는 현역으로 아직도 공군에서 복무하고 있다.



헌병 특수임무반 헬기레펠훈련
공중에서 침투해 적을 제압하라!

지난 6월 4일 공군 제6탐색구조비행전대에서 헌병 특수임무반 헬기레펠훈련이 실시되었다. 이번 훈련은 헬기를 타고 공중에서 침투해 은거해 있는 적과 테러범을 진입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되었으며, 특수임무반 요원들은 HH-60 회전익기에 탑승해 고도 15m, 30m에서 레펠 강하훈련을 펼쳤다.



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앞으로 교육프로그램이 지속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교육사, 美 51헌병대대 요원 기지방어전술 수탁교육
한미 군사교류 활성화 및 우수관계 증진

교육사령부는 美 51헌병대대 요원들을 대상으로 기지방어전술 수탁교육을 실시했다. 美 7공군사령부의 요청으로 진행된 이번 수탁교육은 지난 3월부터 총 3개 차수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근접전투, 소부대 전투실습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수탁교육에 참가한 美 51헌병대대 Michael Yurco 하사는 “이번 교육을 통해 시료를 이해하



공군,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모범 금연기관으로 선정돼

공군이 지난 5월 31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6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에서 모범 금연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표창을 받았다. 공군본부 의무처장 강호형 대령 진급 예정자는 “구호로만 외치는 금연 운동이 아니라 정병들이 실제로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효과 중심의 금연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의 Top Guardian에 배대한 중위
공군, 국방 정보보호 분야 각종 대회 수상 활약

공군 장병들이 국방 정보보호 분야의 다양한 경진대회에서 수상을 휩쓸어 화제다. 먼저 7전대 배대한 중위는 올해의 Top Guardian(국방 정보보호 유공자)으로 선정되어 지난 6월 20일 공군회관에서 열린 제11회 국방정보보호 컨퍼런스에서 국방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국방 해킹방어대회에서는 공군 피스아이팀(중전소 중위 최병희, 7전대 중위 장석영)이 최우수수상, 국방 정보보호 논문경진대회와 소령과 전준희 중위가 각각 우수상을 받았다. **AF**



조종사 하계생활훈련 실시
조난 조종사의 생환을 위한 기술과 체력 배양

지난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경남 남해군 미조면에 서 조종사 4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조종사 하계생활훈련이 실시됐다. 조종사가 해상에서 임무수행 중 비상탈출 후 조난당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이번 훈련은, 낙하산 부양 강화, 심해 표류, 탐색구조, 생존·도피 탈출 등 공중·수상·지상을 넘나드는 실전적이고 입체적인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글
대위 김나청
(공군본부
미디어영상팀)

사진
상사 김경률
(공군본부
공보과)

영화 같은 인터뷰

INTERVIEW

영원한 빨간마후라, 한국영화 최고의 배우 신영균을 만나다

20대가 대부분인 병사들에게 요즘 가장 핫한 걸그룹을 꼽아 보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이 걸스데이라고 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년층인 40~50대 간부에게 걸스데이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고개를 가우뚱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이번엔 반대로 해보겠습니다. 걸스데이를 모르는 장년층에게 신영균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영화배우 신영균!”이라는 전광석화 같은 대답이 돌아옵니다. 반면 20대 병사들에게 다시 신영균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다시 고개가 흔들립니다. 30대에 갓 접어든 필자를 포함한 젊은 세대들에게 신영균이라는 이름은 익숙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2030) 세대들이 태어나고 자라온 동안에는 배우 신영균을 스크린에서 만날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300편에 달하는 영화를 찍었지만 1970년대 후반까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이렇듯 배우 신영균을 바라보는 세대간의 시각차는 엄연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세대를 아우르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빨간마후라’입니다. 영화를 실제로 보지 못한 젊은 공군장병들도 ‘빨간마후라’가 당시 상당히 인기 있었던 영화였으며, 공군 군가로 불리우고 있는 ‘빨간마후라’도 영화에 쓰였던 OST였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영화배우 신영균은 당대의 히트작 빨간마후라의 주인공이었습니다. 1964년 개봉한 영화 빨간마후라는 신상옥 감독이 연출을 맡은 최초의 항공영화였습니다. 신영균은 호탕하고 박력있는 탭댄 ‘나관중 소령’¹⁾ 역할을 맡아 엄청난 인기를 누렸습니다. 비교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그 인기가 지금의 ‘걸스데이’보다 더 좋지 않았을까요? 조종사의 날(7월 3일)이 있는 7월을 맞아 ‘영원한 빨간마후라’ 신영균 한국영화인총연합회 명예회장을 만나봤습니다. 서른이 넘는 나이에 영화배우가 되었던 사연부터 빨간마후라 제작 비화까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신영균 회장님의 인생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1) 영화 각본을 맡은 故 한운사 씨는 실존했던 인물인 유치곤 장군을 모델로 시나리오를 썼다.



잘나가던 치과의사, 영화배우가 되다

AF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영균 회장 아니지요. 다른 언론보다 공군사보에 소개된다는 것은 굉장한 영광이에요. 내가 더 고맙지요.

AF 먼저 회장님의 연기 인생을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서른이 넘는 나이에, 그것도 치과의사라는 직업을 포기하고 연기를 시작하셨다고요?

신영균 회장 어렸을때부터 배우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치과의사를 하면서도 연극을 했을 정도니까. 5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 영화제작이 굉장히 활성화되었어요. 매년 200편씩 제작될 때니까, 제작사 입장에서 갑자기 많은 영화를 만들다 보니까 배우들 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내가 치과의사로 진료 활동을 하면서 연극하는 것을 본 영화인들이 병원에 찾아와 영화에 출연하고 싶은 생각이 없느냐고 묻더라고요.

AF 아무리 배우의 꿈이 있어도 선뜻 직업을 포기하고 영화 배우의 길을 걷는 것이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 같습니다.

신영균 회장 사실 집사람의 반대가 심했지요. 영화배우로서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었으니까. 제작자가 황순원 원작의 '과부' 라는 작품의 시나리오를 갖고 찾아왔는데 출연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해보아겠다고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머슴역할이라서 머리를 깎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당시에는 치과의사가 머리깎고 환자를 볼 수 없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당시 영화배우들이 스캔들이 많았어요. 아내 입장에서 '남편이 치과 문닫고 나가서 영화배우 해서 바람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고민이 있었던 거지요. (웃음) 그래서

"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 연기가 좋아서 배우하는 것이지,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맹세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야 편안하게 연기 활동에 전념한 거예요.

AF 연기에 대한 갈망이 대단하셨나 봅니다.

신영균 회장 내가 모태신앙인데, 초등학교때 교회에서 성극을 한 적이 있었어요. 딱 한마디 하는 단역으로 뽑혔었는데, 그때부터 연기에 대한 꿈이 생겼지요. 고등학교 들어가서도 배우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연극부를 조직해서 공연을 했었어요. 대학 같은 것은 가지도 않겠다. 연극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었지요.

AF 그런데 어떻게 치과의사가 되셨습니까?

신영균 회장 연극이 하도 좋아서 극단 청춘극장에 들어가 지방 공연까지 비슷한 것을 따라 다녀봤어요. 그런데 이것이 참 고생스러운 일이더라고요. 당시만 해도 트럭 하나 빌려서 전국으로 공연을 다녔는데, 사정이 안 좋으니까 트럭에 세트를 다 싣고 배우들은 그 위에 타고 다니는 거라. 나야 총각이었으니까 문제가 없었지만 가정 있는 사람들은 가족들이 다같이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너무 힘든 모습을 보니까 현실적인 문제(생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연극은 부업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공부를 시작했지요. 2년동안 공부해서 서울대 치과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AF 대학생활 중에도 연기에 대한 꿈은 버리지 못하셨다고요?

신영균 회장 서울대에 들어가서도 연극부를 만들었어요. 서울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연도 했었지요. 이순재 씨도 관여하고 이낙훈 씨도 출연하고 그랬었어요.



AF 치과의사의 영화배우 데뷔, 당시에도 큰 화제가 되었을 것 같은데요?

신영균 회장 지금 그런일이 생겨도 비슷하겠지만 당시에도 뉴스감이었거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과부’ 라는 작품으로 데뷔를 했는데, 언론에서 꽤 좋은 평을 해주었었어요. 데뷔를 하고 나서는 병원에 갈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빠졌지요. 내 영화를 보고 신상옥 감독이 전속배우를 하자고 찾아올 정도였으니까요.

신영균을 스타덤에 올려준 ‘빨간마후라’

AF 신상옥 감독과의 인연이 그렇게 시작되신 거군요. 전속배우이시다 보니 빨간마후라 출연도 자연스럽게 결정이 되셨겠네요?

신영균 회장 신상옥 감독하고는 연산균, 빨간마후라 등등 좋은 작품을 많이 했어요. 빨간마후라는 신상옥 감독의 신필름에서 기획을 했고 한운사 작가가 시나리오를 썼어요. 내가 연기했던 산태지 나관중 소령은 실존 인물(유치군장군)이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신상옥 감독이 빨간마후라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영화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감독이 직접 촬영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이겨가면서 작품을 했었지요.

AF 당시 공중촬영을 하셨던 적이 있나요?

신영균 회장 작품에 대한 이해 때문에 경험 삼아서 타본 적은 있지만 직접 비행하면서 찍지는 않았어요. 조종석을

만들어 놓고 여러 전투장면을 찍었었지요.

AF 저같이 젊은 세대들은 당시의 인기를 잘 알지 못하는데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신영균 회장 그 당시의 인기라는 것은 그야말로 대단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천만 관객을 넘었을 거라고 봅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대만에서 상영할 때는 관객이 너무 많이 모여들어서 손님들을 며칠동안 줄세웠다고도 하더라고요. 당시 아시아 영화제라는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 출품해서 감독상과 남우주연상을 탔을 정도로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서 큰 인기를 모았었어요. 한류의 원조격이었지요. (웃음)

목숨을 건 빨간마후라 라스트 신 촬영

AF 영화를 촬영하시면서 에피소드는 없었나요?

신영균 회장 당시에 공군이 대대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줬기 때문에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요. 에피소드라고 하면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나관중이 죽는 장면입니다. 공중전투를 하다가 총에 맞아 죽는 시나리오였지요. 지금이야 특수촬영이 다 되지만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제작진에서 일등사수를 데려와서 실제로 총을 쏘거든요. 바로 뒤에서 쏘면 카메라에 걸리니까 10미터 뒤에서 실탄을 쏘는 거예요. 목을 스치고 지나가 유리가 뚫어지고 나면 그때부터 연기를 하는 거지요. 정말 프로정신으로 찍다가 죽어도 좋



다는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못하는 거지요. 그런데 실제로 쓴 사람이 누구인지는 아직도 몰라요. 그냥 일등사수라고만 들었어요. (웃음)

AF 회장님께 영화 ‘빨간마후라’는 어떤 의미입니까?

신영균 회장 영화배우를 하면서 남는 작품이 몇개 있어요. 300편이 모두 다 남을 수는 없는거지요. 대표적인 것이 빨간마후라, 연산군, 대원군 정도인데, 영화배우로서 영원히 기억하고, 간직하고 있는 것이 빨간마후라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 역사적으로 조종사를 그렇게 멋진 직업인으로 부각시킨 영화도 없었다고 봐요. 나는 해군 군의관을 했지만 사람들이 해군으로 안봐요. 신영균은 공군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웃음)

신영균을 영원히 살게 한 ‘기부’

AF 최근에는 500억에 달하는 재산(명보극장)을 사회에 기부하는 큰 결정을 하셨습니다. 어떤 생각이셨나요?

신영균 회장 그런데 어느날 명보극장 건물을 사겠다고 누군가 찾아 왔어요. 500억을 주겠다고 하더라구요. 공장 가족회의를 열었지요. 아들이 총무로에 하나 남은 명보극장을 버리면 안되지 않겠냐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영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기증하는 것이 영원히 사시는 길이다”고 조언을 해줬어요. 지금도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수한 후배들을 양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니까요.

AF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 사업들을 하고 계신가요?

신영균 회장 명보극장의 임대수입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어요. 어린이 영화캠프 체험교실과 영화인과 연극인 자녀들을 위한 장학사업도 하고 있고, 중요

한 것은 능력있는 사람을 뽑아서 공부시키고 장학금을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얼마 전 신인 문병곤 감독의 ‘세이프’라는 작품이 칸느 영화제 단편 부문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적이 있어요. 지금까지 장편이든 단편이든 우리나라에서는 황금종려상을 받은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재단에서 지원을 받았던 감독이 큰상을 받게 된 거지요. 상당히 보람을 느낀 순간이었지요.

공군력의 중요성을 가슴 깊이 느껴주길

AF 영화에서 간접적으로 조종사의 생활을 경험해 보셨습니다. 공군 조종사들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영균 회장 조종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조국의 하늘을 지키는 멋진 사나이들입니다. 나라를 위해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가장 용기 있고 책임감 있는 정신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길이 조종사들을 하늘을 날으는 멋진 사나이로 바라보게 해야 합니다.

AF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빨간마후라 세대가 아닌 저로서는 상당히 의미있는 시간이었는데요. 마지막으로 공군장병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신영균 회장 오늘도 각자의 임무현장에서 묵묵히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군장병 여러분이 있어 마음 든든합니다. 제가 영화를 찍었던 당시보다 비약적으로 발전한 공군의 모습을 볼 때 아주 뿌듯하고 항상 공군을 위해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공군장병 여러분들도 공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슴속에 새기고 임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F**



글
대위 김나청
(공군본부
미디어영상팀)

사진
상사 김경률
(공군본부
공보과)

hidden track

돌잡이에 행운권 추첨까지! 군대에서 이런 생일잔치 해봤니? 군대 생파 문화의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한다

군대에서 맞이하는 생일은 조금 특별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생일 기분을 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운이 좋게 식단이 맞아 떨어지지 않는 이상 미역국을 얻어 먹기는 힘들 뿐더러, 가족들의 따뜻한 축하도 받기 어렵고, 생일선물이나 케익은 엄두도 못내는 것이 현실인 겁니다. 그래도 동료들이 초코과자로 만들어 주는 생일상에 감동 받았던 기억들, 한번쯤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소개하고자 하는 인물은 이런 군대 생일축하 문화에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병사입니다. 입대 전 익혔던 재능으로 많은 장병들을 행복하게 하는 재주꾼, 히든트랙의 첫 주인공, 작전사령부 근무지원단 시설대대 황어준 일병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저녁식사를 마치고 장병들이 향하는 곳은?

지난 6월 11일 저녁 작근단 시설대대의 한 생활관. 저녁식사를 마친 장병들이 하나 둘 줄지어 히든트랙 주인공 황어준 일병의 생활관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무슨일이라도 있는걸까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생일을 맞은 병사의 축하파티가 있는 날! 이곳 병사들의 생일파티는 매우 특별합니다. 그냥 초코과자를 놓고 축하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돌잔치를 해줍니다. 000 병장의 '23번째 돌잔치' 이런 식으로 말이죠.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볼까요?

軍 선임 생일파티 전문 MC

작근단 **황어준** 일병



돌잔치의 군대버전, 행운권 추첨과 돌잡이까지!

돌잔치를 가보신 분이라면 군대 돌잔치가 어떻게 진행될지 대충 예상은 되실 겁니다. 황어준 일병이 주도하는 병사 돌잔치는 아이들의 돌잔치와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모든 것은 군대버전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먼저 병사들은 입장 전에 행운권 응모를 합니다. 생일을 맞은 동료가 돌잡이때 어떤 것을 잡을지 예측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객의 입장이 완료되면 생일자가 한 동료와 함께 손을 잡고 들어옵니다. 생일자 옆에 있는 이 병사, 누구일까요? 바로 아버지 기수 병사(입대가 1년 차이나는 선임)입니다. 돌잔치에 엄마, 아빠가 아기와 함께 입장하는 것처럼 아버지 기수가 함께 들어와 주는 것이죠. 깨알 같은 구성입니다.

신규 코너 '히든트랙'은?

공군지역개발과 함께 새롭게 신설된 '히든트랙'은 숨겨진 재능과 장기를 갖고 있는 공군장병들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소재를 제보해 주신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들만의 초코파티, 황어준 일병이 있어 더욱 즐겁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면 이제 황어준 일병이 활약할 차례입니다. 행사용 안경과 마이크를 잡은 황어준 일병, 돌잔치 BGM으로 흥을 돋우고, 센스 넘치는 진행으로 좌중을 압도합니다. 22살 청년에게 돌을 맞은 아기에게처럼 대하니 웃기지 않을 수가 있네요. 돌잔치뿐만 아니라 이곳의 생일파티는 또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이들이 초코파티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생일을 맞은 병사에게 초코과자를 전 대대원이 선물하는 겁니다. 각자가 사온 초코를 한꺼번에 풀어놓기 때문에 성대한 잔치상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하네요. 초코를 억지로 먹이지만 않는다면 좋은 문화가 될 것 같습니다.

전역 후 삶을 예측하는 돌잡이, 군번줄을 잡는다면?

돌잔치는 무르익고 절정으로 치달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메인이벤트가 남았습니다. 바로 돌잡이입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리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먼저 아령은 전역 후에도 운동선수처럼 건강하게 살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자가 있는데요. 시설대대라 공학도가 많다보니, 설계와 같은 건축 관련 분야에서 일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커피믹스 보이시죠? 커피믹스는 행정병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행정병처럼 전역 후에도 사무직에서 근무하라는 뜻입니다. 돈은 아이돌 돌잔치와 같은 의미로 전역 후에 많은 돈을 벌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군번줄이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군대에 말뚝 박을 팔자라는 겁니다. 재미나지요?

입대 전 아르바이트로 시작했던 일, 대대원들이 행복해할 때 보람 느껴

작군단 시설대대 생일파티 문화를 격조있게 바꿔놓은 황어준 일병은 입대 전 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로 돌잔치 MC를 했었습니다. 자대에 온 첫날, 선임들이 사회에서 했던 일을 물었고, 돌잔치 MC를 했었다는 경력에 우연치 않게 생일잔치에서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일 이후로 황어준 일병은 동료들의 행복한 생일파티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황 일병은 “처음에 저를 활발하게 보지 않는 선임들이 많았는데, 제가 유쾌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딱딱해지기 쉬운 군대에서 생일을 마음껏 만끽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너무 즐겁고,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히든트랙의 첫 번째 주인공, 병사들의 생일을 행복하게 해주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황어준 일병이었습니다. **AF**





포토 스케치

흰 구름 위로 펼쳐진 천사의 날갯짓



흰 구름 위로 붉은 섬광이 멋진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집니다. 마치 천사의 날개를 연상시키는데요. 월간 공군이 C-130 플레어 투하 훈련을 뷰파인더에 담았습니다. 또한 8월에 첫 방송되는 국민오디션 '슈퍼스타 K5'에 참가하는 공군장병들의 활약을 기원하는 포스터도 함께 담았습니다. 함께 감상하시죠.



촬영 : 상사 김경률

2013 **7**
July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8월 9일
첫 방송!

16000199 보라매 슈퍼스타K5 출격 명 받았습니다!

슈퍼스타K5

2013  July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한국항공소년단

www.yfk.or.kr

	경기남부연맹 02-3679-1129	전북연맹 063-227-9510	
	경기북부연맹 02-455-9988	부산/경남연맹 051-364-5988	대구/경북연맹 053-422-8875
서울연맹 02-508-2676	충북연맹 043-224-5599	대전/충남연맹 042-482-1618	광주/전남연맹 062-413-3581



한국항공소년단
YOUNG FALCONS OF KOREA

공군IN
공군문화유산
답사기



글
김영욱



사진
상사 김경률
(공군본부
공보과)



공사생도들의 땀과 함성이 살아 숨쉬는 보라매공원





- ① 보라매공원이 공군사관학교 부지였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성무탑. 공군사관학교가 충북 청원으로 이전하며 똑같은 모형을 새로 세우고, 보라매공원 성무탑은 그대로 남겨두었다.
- ② 1970년대 대방동 공군사관학교에서 생활하던 생도들의 모습
- ③ 보라매공원 입구. 비가 오는 날임에도 산책하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서울 대방동 보라매공원은 공군사관학교가 있었던 곳이다. 공군사관학교는 1949년 1월 4일 김포에서 항공사관학교가 설립돼 6월 10일 1기 사관생도가 입학하였고, 그해 공군이 육군에서 독립해 10월 1일 공군이 창군되면서 항공사관학교를 공군사관학교로 개칭한지 불과 9개월도 안되었을 때인 1950년 6·25 한국전쟁이 일어났다. 그래서 공군사관학교는 피난길에 올라 수원, 대구를 거쳐 제주도 대정초등학교로 옮겼다가 진해로 옮기고, 다시 서울 대방동으로 이전하였다.

보라매는 대한민국 공군사관학교를 상징하는 새다. 그래서 '보라매공원'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공군사관학교가 충북 청원으로 옮겨가고 조성된 보라매공원은 서울 시민들의 휴식을 위한 자연과 문화의 공간이 되었다.

바람도 쉬어 넘는 고개, 구름이라도 쉬어 넘는 고개/ 산진이 수진이 해 동청 보라매라도 다 쉬어 넘는 고봉 장성령 고개/ 그 너머 임이 왔다 하면, 나는 한번도 아니 쉬어 넘으리라

누가 쓴 시조인지는 몰라도 얼마나 그리운 임이기에 바람, 구름, 매들도 쉬어가는 높은 장성령 고개지만 사랑하는 임이 온다면 단숨에 넘어가겠다는 내용이다. 시조에 산진이 수진이, 해동청 보라매가 나온다. 매는 예부터 기상과 용맹을 상징하는 새다. 그중 으뜸으로 치는 매는 깃이 푸른 해동청 보라매다.

우리나라 속담에 '매는 굶어 죽어도 벼이삭은 먹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훌륭한 사람은 아무리 곤궁하여도 탐욕을 내지 않는다'는 뜻이다. 달리 말하자면 아무리 먹이가 없어 굶어 죽을지라도 게걸스러운 까마귀처럼 짐승의 죽은 시체를 파먹지 않는다는 말이고, 경망스럽게 갑죽대는 참새처럼 아무렇게나 논밭에 내려 벼이삭이나 보리이삭 등의 곡물을 먹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러니 정의로운 사람은 자신이 품은 의지를 굽히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래서 공군사관학교의 상징 보라매는 용맹성과 충성심을 나타낸다. 사관생도들은 대한민국 공군의 정예 장교가 되었을 때 조국의 하늘을 수호하고 적이 우리나라를 침공해오면 당연히 맞서 싸우는 용맹한 보라매가 된다.

보라매공원 안에서도 '에어 파크(Air Park)'라고 따로 구역을 정해 각종 군용기 전시와 '공군사관학교 대방동 캠퍼스'라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비문의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 정예 장교를 양성하는 공군사관학교 서울 대방동 캠퍼스는 1958년 12월에 진해 캠퍼스에서 이전해 27년 동안이나 있었고, 1985년 12월에 충북 청원 캠퍼스로 이전하기 전까지 7기생부터 37기생까지 총 2,8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하늘에 건다/ 드높고 푸르른 하늘에 진다/ 부귀와 영화에 눈을 돌소냐/ 세계를 품고 나르는 의지/ 영겁을 지나 천연하리라/ 청춘의 순결을 한데 모아서/ 성무대 언덕에 치솟은 불길/ 보라 어둡고 훈미한 세상이/ 의연히 선 불사조의 모습이



4



- ④ 대방동 공군사관학교 1층대 건물이었던 보라매 청소년 수련관. 리모델링되어 옛모습을 찾기는 힘들다.
- ⑤ 공사 4기 졸업생인 박웅진의 시비
- ⑥ 군용기가 전시되어 있는 Air Park. 대방동 캠퍼스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보라매공원의 서문(西門) 언덕에 있는 탑 '성무대(星武臺)'의 앞면에 새겨진 「헌시(獻詩)」로 사관생도들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시다. 뒷면에는 '이곳(보라매공원)은 1958년부터 1985년까지 공군사관학교가 주둔하였던 곳이다.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뜨거운 염원과 의지를 상징하여 사관생도들의 성금으로 1962년에 세웠다.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기 위하여 새기지(충북 청원)로 옮겨가며 보라매의 꿈을 기르던 이곳에 이 탑을 남겨두고 떠나간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여 하늘을 지키려는 우리의 굳은 뜻을 기억하고 조국의 번영을 기원하자. 1985년 12월 10일' 이라고 새겨져 있다.

1966년 당시 박정희(朴正熙) 대통령이 공군사관학교를 '성무대'라고 명명했다. 성무대는 '성무인을 길러내는 집'이라는 의미이다. 그래서 사관생도들이나 졸업생을 '성무인(星武人)'이라고 부른다. 성무의 별 '성(星)' 자는 하늘의 지도자를 뜻하고, 성무의 '무(武)' 자는 무예(武藝)를 단련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성무는 공군사관학교의 교육인 지(智), 덕(德), 용(勇)을 겸비한 우수한 하늘의 지휘관을 길러낸다는 뜻이다.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별빛에 물들은 밤같이 까만 눈동자/ 저 별은 너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아침 이슬이 내릴 때까지

1960년대에 나온 포크송이다. 그 무렵 일반대학교 캠퍼스에서 청년문화가 한창 붐을 일으키고 있었다. 이른바 청년문화로 상징되는 청바지에 맥주를 마시고, 통키타 반주에 포크송을 부르며 젊음을 발산했다. 그 당시에 공군사관학교 어느 사관생도는 외출 때마다 사귀던 연인을 만나면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이라는 포크송을 부르면서 '나는 꼭 별이 될거야'라고 했다. 그 생도는 훗날 꿈이 이루어져 어깨의 견장에 별을 다는 장군이 되었다는 에피소드가 있기도 하다.

에어 파크를 중심으로 서쪽에 있는 보라매 공원관리사무소 건물은 공군사관학교 회관으로 사관생도들이 배고프면 빵을 사먹기도 하고, 선배 생도들이 후배 생도들에게 기합을 주는 곳이기도 했다. 그리고 바로 동쪽 옆에 있는 보라매청소년수련관은 1층대 건물이고, 2대대가 자리 잡고 있던 곳은 메머드 빌딩 서울대학교 보라매병원이 자리 잡고 있다. 바로 앞쪽의 보라매중앙잔디광장은 연병장으로 졸업식과 임관식에 퍼레이드를 펼치던 곳으로 여름철에 잡초가 올라오면 사관생도들이 잡초를 뽑기 위해 땀을 흘리며 무수히 드나들던 곳인데, 그런 역사를 모르는 시민들은 산책만 할 뿐이다.

보라매공원의 동문(東門)에는 꼭대기에 청동(靑銅) 보라매가 앉아 있는 '충효호국비천상(忠孝護國飛天)' 탑이 우뚝 서있다. 사

관생도들이 기합을 받을 때 선착순으로 돌고 오던 곳으로 1974년 22, 23, 24기 생도들이 세웠다. 탑 뒷면에는 '조국과 겨레와 하늘에 충성을 다짐하며 스스로 창조하는 역사 속에 위용의 나라를 펴는 쌍매, 총매, 웅비가 이제 폐기찬 보라매의 장한 모습으로 저 푸른 조국의 하늘을 힘차게 날으리니 촌음(寸陰)의 다발을 모우는 여기 그 혼을 보라'는 글이 새겨져 있다. '보라매의 장한 모습' 이야말로 사관생도들의 능률한 기상을 나타내고 있다.

대방동 캠퍼스시대의 공군사관학교에서 배출한 조종사들은 전쟁을 치루지 않았다. 하지만 일편단심 충정으로 조국의 하늘을 수호하기 위한 훈련 중이거나 초계임무 중 순직한 조종사들의 안식(安息)을 비는 법당이 에어파크에서 남서쪽 언덕에 있다. 원래는 국가안보의 역군이 되겠다는 장한 뜻을 지닌 사관생도들을 위해 1971년 11월 공군 불교신도들의 염원과 각계의 후원으로 건립되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법당 이름을 '성무호국사(星武護國寺)'라고 명명하였다. 공군 최초의 제1호 불사로 공군사관학교가 옮겨가고부터는 '보라매법당'으로 이름을 바꾸었지만 현재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사찰이다.

보라매공원 남문(南門) 쪽에는 해방 후 신탁통치를 반대했던 '반탁반공순국학생 총헌탑'을 비롯해 여러 기념비의 조형물과 함께 소박하게 꾸며진 공군사관학교 4기 졸업생 '박웅진(朴雄進)의 시비'가 있다.

*멀리 바라다 본다/ 시선이 머무는 곳에/ 마음의 문을 열고/ 허름한 꽃씨 하나 심는다//
씨는 자라서/ 산이 되고/ 물이 되고/ 나무가 된다/ 그리고/ 바람과 구름이/ 머물고 갈/
정갈한 나의 집이 된다// 더 멀리 바라다 본다/ 시선이 머무는 곳에/마음의 문을 열고/
허름한 꽃씨 하나 심는다/ 씨는 자라서 하늘이 된다*

박웅진 시비에 새겨진 「씨는 자라서 하늘이 된다」는 시다. '허름한 꽃씨 하나지만 심으면 자라서 하늘이 된다'는 듯이 1949년 육군항공사관학교로 출발한 공군사관학교는 대방동 캠퍼스에서 충북 청원 캠퍼스로 이전하였지만, 오늘도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정의 비행과정의 훈련을 마치고 정예 조종사가 된 보라매들이 하늘을 종횡무진 날며 조국의 하늘을 지키고 있다. **AF**





글
중위 조무형
(공군본부
정훈과)



일러스트
이한아
(프리랜서
일러스트 작가)



세상에서 가장 멋진 프로레슬러



1

1998년 5월,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의 한 프로레슬링 경기장. 발 디딜 틈 없이 만원 관중으로 꽉 찬 이 경기장에서는 나이 지긋한 어느 백전노장 프로레슬링 선수의 은퇴식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1975년 프로레슬링에 입문한 이 선수는 '마법사의 폭풍(Fray Tormenta)'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2



경기 때마다 황금 가면을 쓰고 등장하는 그는 화려한 분장과 현란한 개인기로 매번 관중들을 열광시켰습니다. 경기 중에 찾아오는 위기와 고통의 순간마다 쓰러지지 않고 오투기처럼 다시 일어나 상대 선수를 제압하는 괴력의 소유자이기도 했습니다.

3

그렇게 레슬링 무대 위에서 23년 간 활약하며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준 '마법사의 폭풍'은 어느새 53세의 중년이 되었고, 오랫동안 자신을 아껴 준 팬들을 위해 이 날 마지막 은퇴 경기를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마법사의 폭풍'이 링 위에 오르자 수많은 관중들은 모두 기립박수와 뜨거운 환호로 그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4



그는 링 한가운데 서서 관중들의 갈채가 잦아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주위가 조용해졌을 즈음, 그는 자신이 쓰고 있던 황금 가면을 천천히 벗기 시작했습니다. 23년 동안 아무도 본 적 없었던 그의 실제 얼굴이 조금씩 드러나자, 관중들은 그의 뜻밖의 행동에 모두 놀라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가면을 벗은 그의 얼굴에는 감격과 환희의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5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 그는 진심을 가득 담아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천주교 교회에서 신부로 일하고 있는 세르지오 구티에레스라고 합니다. 23년 동안 프로레슬링을 하는 동안 저는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을 경제적으로 도울 수 있었습니다. 외로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들은 제게 한없는 행복이었습니다. 이 모두가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 덕분입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관중석에서는 잠시의 정적이 흐른 뒤 아까보다 더 뜨거운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세르지오 구티에레스(Sergio Gutierrez) 신부는 오랫동안 자신의 신분을 감춘 채 험난한 프로레슬링을 하며 얻은 수익금으로 3천 명이 넘는 고아들을 돌봐왔던 것입니다. 그 날 경기장 내에 오래도록 박수갈채가 쏟아졌던 것은 아마도 그의 가슴 따뜻한 선행에 대한 관중들의 감동과 고마움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AF**

6



편집
대위 김나청
(공군본부
미디어영상팀)

담벼락

그 일곱 번째 자살 이야기

이번 호 담벼락 주제는 '휴가'였습니다. 응모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계곡

피서나 휴가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떠오르는 경험이 하나 있다. 매미가 맘مم 울어대던 그날, 나의 죽을 뻔했던 이야기를 한번 해 볼까 한다. 때는 2010년의 무더운 여름. 당시 대학교 신입생이던 나는 여름 방학에 있던 학년 MT(여러 학년이 같이 가는 것이 아닌, 학년별로 가는 MT)에 참가하여 가평으로 놀러가게 되었다. 당시 바다에는 많이 가봤지만 계곡은 처음이었고, 주변이나 뉴스에서 들은 계곡 사고 이야기를 상기하며 안전하게 놀다 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선배들과 같이 가지 않는, 1학년들만의 MT이기 때문에 다들 눈치 보지 않고 튜브 끼고 물장구치면서 신나게 놀았다. 원형 튜브에 엉덩이를 걸쳐놓고 동등 떠다니며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였다. 옆에 있던 동기 한 명이 갑자기 날 막 미는 것이다. 물론 그 동기는 전혀 그럴 의도는 없었겠지만, 나는 계곡 급류에 휩쓸리고 말았다. 사실 계곡 급류라고 해도 물살이 그렇게 세지는 않았다. 그 때문에 나를 민 동기도, 나도 다른 동기들도 마냥 떠내려가는구나 하고 생각했을 거다.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다. 계곡 가 본 사람은 알겠지만 계곡은 내리막길처럼 평탄하게 쭉 내려오지 않고 사이사이 바위가 있어 계단식으로 내려가는데, 한 계단 아래의 계곡부터 갑자기 물살이 매우 거세지는 것이었다. 나는 속수무책으로 빠르게 휩쓸려 내려가기 시작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난, 사태의 심각성을 그렇게 느끼진 못했다. 그냥 당황했을 뿐이었고, 어찌 해야 될지를 몰랐을 뿐이었다. 그때 나의 눈에 내 앞을 막아선 커다란 바위가 들어왔다. 수면 위로 불쑥 튀어나와 있는 제법 큰 바위를 향해 나를 태운 튜브는 죽음의 질주를 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찰나의 순간 동안 나에게 2가지 선택이 계속해서 머리를 맴돌았다. 첫째는 튜브를 버리고(빌린 튜브라 물어줘야 한다.) 탈출하는 것이고 둘째는 튜브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부딪히고 별로 안 다치길 바라는 것. 물론 고민은 길지 않았다. 나는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빌린 튜브를 포기하고 뛰어내렸다. 바위가 한 2~3미터 쯤 앞에 있을 때였다. 하지만 나의 몸은 물살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떠내려가려 했다. 나는 필사적으로 옆에 있던 갈대를 잡았다. 물론 튜브는 이미 저 멀리 떠내려가고 있었다. 두 다리로 온 힘을 다해 버티고 내 손은 갈대가 생명줄인 양 꼭 잡고 절대 놓지 않았다. 아이들은 저 멀리 조그맣게 보였고, 나는 내가 생각보다 멀리 쏠려 내려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일단 이 급류를 벗어나기 위해 걸음을 땀 순간…… 나는 엄청난 자연의 힘에 의해 쭉 미끄러져 거의 바위 1m 이내까지 밀려갔다. 겨우 다시 갈대를 붙잡아서 멈춰 설 수 있었다. 결국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건 갈대를 붙잡지 않은 왼쪽 팔과 입이었다. 나는 저 멀리 있는 애들한테 도움을 요청했다. 살려달라고. 물살이 너무 세다고. 장난 아니라고. 근데 애들은 안전 불감증인지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소리가 안 들리는 건지, 그냥 강 너머 불구경하듯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정말 야속하기 그지 없었다. 결국 나를 이 지경에 이르게 한 그 동기가 나를 구하기 위해 출동했다. 그렇게 나는 가까스로 구조(?)되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추억이지만, 당시에는 정말 오싹했었던 기억이다. 계곡이 넘쳐서 죽었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있어도 튜브 타다가 떠내려가서 바위에 박고 죽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아무튼 그래도 뉴스에 나오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었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도 피서 가서 위험한 장난을 치지 말고 안전하게 놀다 왔으면 좋겠다.

18비 상병 김지훈





명석 깔고 모깃불 지핀 옛 시골 피서

시골에서 자란 어린 시절의 여름이 가끔씩 생각난다. 당시만 해도 농촌은 농사일로 분주해 요즘처럼 휴가나 피서는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런 와중에도 여름철 밤이 되면 피서 못지 않은 것이 있긴 했었다. 우리 가족은 저녁 때가 되면 어김없이 마당에 명석을 깔고 한쪽에 모깃불을 피워놓고 삶은 고구마나 감자를 먹곤 했다. 명석에 멍하니 누워 하늘을 쳐다보면 밤하늘의 별은 얼마나 많은지, 저 많은 별 중에서 과연 내 별은 어디에 있는지 헤아려 보기도 했다. 언젠가 부모님께서는 빈 병에 심지를 붙이고 그 속에 기름을 넣은 후 불을 붙여 마당 한가운데 놓았었다. 그랬더니 주변의 하루살이와 모기들이 많이 떼거리로 모여 들었으며 어디서 나타났는지 풀썩 이곳저곳에서 두꺼비들이 불 주위로 어슬렁어슬렁 하나 둘씩 모여 들기도 했다. 이윽고 어느 정도 불 앞에 다다르자 두꺼비들은 모두 합창이라도 하듯이 널름널름 정말 눈깜짝할 정도로 모기를 먹어 치우는 것이 아닌가. 아버지께서 “오늘 저녁은 두꺼비들이 모기를 다 잡아먹어서 모기에 물리거나 뜯기는 일이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저녁이면 정말 깜짝같이 모기가 사라지곤 했다. 여름철은 방학이라서 늘 놀기에 여념이 없었고 부모님들께 잡히면 농사일을 거들어야 했으므로 아이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저마다 아침만 먹으면 일찌감치 집을 벗어났다. 지금처럼 게임방이나 노래방, 그리고 인라인이 없어도 주위는 온통 놀거리가 많았다. 도랑에는 늘 우리를 보고 놀라 뒷걸음질치는 가재와 물방개, 반짝거리는 피라미들이 있었는데 때로는 어른들도 농사일을 제쳐놓고 반도를 들고 물고기를 몰곤 했다. 올 여름에는 유난스레 불볕더위가 지속되고 있다. 아이들이나 어른 할 것 없이 여름은 정말 동심을 자극하는 계절임에 틀림이 없나 보다. 지금은 에어컨, 선풍기, 팔빙수 그리고 전자모기향 등으로 인하여 불볕더위도 식힐 수 있고 모기에 물릴 일도 적어졌지만 그래도 모깃불 피워놓고 부채질 하면서 온 가족이 모두 모여 앉아 고구마와 감자 먹을 때가 그리워진다. 그런데 요즘은 직장마다 여름 7월 말이나 8월 초에 집중적으로 휴가를 실시해 피서여행을 떠나는 가정이 대부분이다. 유명한 해수욕장이나 계곡, 강, 해외여행, 국립공원을 찾아가지만 어디에 가도 피서인파로 발디딜 틈 없이 출발부터 도로에서 교통체증으로 시간 다 보내고 피서지에 가도 마음 편안하고 몸 쭉 뻗을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으니 피서여행이 아니라 고생여행이 아닌가. 휴가가 즐겁고 마음의 평안을 주고 에너지를 재충전하여야 함에도 온통 짜증 나고 신경질 나며 스트레스만 받고 오니 차라리 옛날처럼 가족이 집에서 수박 사다가 얼음과 섞어 수박물 마시며 등물치며 누워서 보고 싶은 책이나 읽어보는 것이 더 나은 피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은 비단 나만의 생각일까.



교사 우정렬



소박했던 피서의 추억

한여름 야외에서 일하는 전우들이 듣기에는 배부른 소리일지도 모르겠지만, 창문 하나 없이 사방이 두꺼운 콘크리트 벽으로 꼭 막혀 있는 근무지에서 여름을 나야 한다는 것도 꽤나 고통스러운 일이다. 절전의 일환으로 전투복 상의를 벗고 근무에 임하고 있지만, 열이 나갈 데는 없고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탓에 실내의 더위를 이기기에는 역부족이다. 공여지책으로 손부채질을 하고 있노라면, 어린 시절 경험했던 시원한 여름밤이 떠오른다. 고래등처럼 큰 기와집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거의 사라져가는 널찍한 대청마루를 자랑하던 외삼촌댁은 우리 가족을 포함한 여러 친척들의 인기 있는 피서지였다. 조그맣게 과수원을 하시던 외숙모님께서서는 우리 가족이 여름휴가를 맞아 올 때면 산지에서 바로 가져온 포도와 수박 등숙을 이때다 하시며 풀어놓으셨고, 외삼촌께서는 평소에는 접어두고 있던 거대한 돛자리와 모기장을 대청마루에 설치해 두셨다. 과수원 너머에 있는 산이 어둠에 슬슬 모습을 감출 즈음이면 우리는 윤기가 흐르는 과일들을 푸짐하게 차려놓고 너나 할 것 없이 대청마루 돛자리 위에 드러누워 있었다. 그렇게 하면 선풍기나 에어컨이 없이도 시원한 잠을 청할 수 있었다. 도시의 열대야로 불면의 고통에 시달리곤 했던 우리 가족에게는 그러한 외삼촌댁으로의 피서가 굶직한 거봉과 통통한 수박의 과육만큼이나 달콤하게 느껴졌다. 비싼 돈을 들여서 해외의 피서지로 떠나는 호화로운 휴가나 최신식 냉난방 설비가 되어 있는 사무실에서 여름이라 할지라도 그 옛날 대청마루에서의 여름휴가보다 절실히 필요하게 느껴지지는 않는다. 내일의 또 다른 무대위를 예보하는 방송을 듣는 오늘, 문득 예전의 그 소박했던 피서가 정말로 그리워진다.



36전대 일병 이승주

※ 8월호 공모 주제는 '노래'입니다.

CULTURE

38.5

트렌드가 보인다

it

글
홍국화
(월간 세시 기자)



사진
KENZO,
THOM GREY,
SYSTEM,
LEATA, BCD,
SAINT
LAURENT,
PROSTINES,
NIVEA,
SCHICK



TREND'S
GOOD!

트렌드가 보인다!

지금 리얼웨이는 스냅 백이 대세!



머리가 짧은 병사들에겐 외박을 나갔을 때 모자가 필수죠? 요즘은 '스냅 백'이 대세입니다. 스냅 백이란 뒤가 뚫린 캡 모자를 지칭해요. 톰 브라운의 세컨드 브랜드인 '툼그레이'가 국내에 상륙한 이후 수트 차림에도 캡을 쓴 남자들이 늘었습니다. 뉴에라와 손을 잡고 탄생한 겐조의 캡도 대세를 타면서 화려한 프린트와 큼직한 로고가 박힌 모자들까지 합세해 거리는 캡 스타일에 홀릭 중! 스트리트 패션

블로그 [Streetper\(streetper.co.kr\)](http://Streetper(streetper.co.kr))를 운영하는 포토그래퍼 최승점은 "최근 리얼웨이에도 컬렉션 못지않게 키치한 패션이 많다. 밋밋한 룩에 독특한 액세서리로 힘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은 큼직한 레터링이 박힌 캡을 스타일링한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본래 거리의 패션인 힙합에서 기인한 캡 스타일은

힙합팬들이 즐겨 쓰는 '뉴에라'부터 시작됐는데, 이후 다양한 브랜드에서도 비슷한 디자인의 캡 모자가 쏟아지는 중이죠!

클러치를 든 남자



오랜만에 휴가를 나가서 친구들을 만날 때, 유행에 뒤쳐지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싶다면 옷은 최대한 심플하게 입고 클러치를 들어보세요. 시스템 옴므에서 출시한 '올드 글로리 클러치(Old Glory Clutch)'는 무거운 가죽보다 가벼운 PVC 소재라 스크래치에 강하고 무게가 가볍습니다. 아이패드를 넣을 수 있는 크기라고 생각하면 좋죠. 앞, 뒤에 지퍼 포켓이 있고 내부에도 지갑을 따로 넣을 수 있는 포켓이 있어 효율적인 수납도 가능!



올여름 선글라스의 3가지 유행 키워드

오랜만에 외출하신다면 선글라스부터 준비하세요. 갑작스러운 불볕더위에 작년보다 일찍 선글라스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거든요. 이제 선글라스는 멋을 떠나 자외선에 노출될 소중한 눈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품이기도 하죠. 오랜만에 휴가를 나가 장시간 야외에서의 나들이를 계획하고 있다면 선글라스 쇼핑은 미리 해둬야 할걸요! 올여름은 세 가지 키워드만 기억해두면 됩니다. 심플한 클래식 타입, 레오파드 프린트 타입, 거울처럼 코팅된 미러렌즈 타입! 원하는 스타일에 맞는 선글라스를 골라 볼까요?

시계방향으로

1. 편안하면서도 클래식한 스타일

클래식한 에비에이터 스타일의 선글라스를 추천! 세련된 블랙컬러로 과하지 않은 멋스러움을 보여줄 수 있을 테니까요!

2. 유행에 민감한 화려한 패션 피플스타일

골드컬러 안경테에 레오파드 무늬가 덮인 선글라스는, 트렌디한 스타일로의 변화를 고민중인 사람에게 추천해요. 스테인리스 소재 특유의 골드컬러와 은근한 레오파드 무늬가 세련된 바캉스룩을 연출해줄 듯!

3. 남들과 다른 독특한 스타일

올시즌 유행 아이템으로 가장 손꼽히는 건미러렌즈! 선글라스의 렌즈가 거울처럼 불투명하게 되어 있고, 다양한 컬러로 염색이 되어 스타일리시한 아이템!



데님작업, 폴로 셔츠

휴가 나가서 쇼핑 계획이신 분! 면 티셔츠 대신 폴로 셔츠 어떨까요? 스포츠 경기인 폴로의 유니폼에서 유래된 폴로 셔츠는 스키니한 데님 위에 단정한 멋을 내기에 좋은 아이템이죠! 흔히들 '피케 셔츠' 라고도 부릅니다. 피케 셔츠는 겉 표면이 우둘투둘한 벌집 모양의 원단을 일컫는 '피케' 소재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이라 '폴로 셔츠' 라고 통칭하는 것이 좋아요. 스키니 데님을 발목까지 접어 올리고, 폴로 셔츠를 입으면 단정한 훈남 분위기엔 그만! 스타일을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죽지 않았습시다! **AF**



글 · 사진제공
이미도
(외화번역가,
〈똑똑한 식스팩〉
등 지음)



Hollywood English

론 레인저

블록버스터 극영화 시리즈 <캐리비안의 해적 Pirates of Caribbean>은 지금까지 글로벌 박스오피스에서 37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한화로 약 4조원에 해당하는 액수이지요. 그런 천문학적 성과를 낸 그들이 5편의 제작에 앞서 잠깐 대양을 떠납니다. 그들이 새로 총출동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그들은 바다만큼이나 광활한 대륙이 그리웠나봅니다. 미 합중국의 사막입니다. 그렇다면 해적 조니 뎀은 어떤 캐릭터로 변신할까요? 인디언입니다. 7월에 개봉하는 <론 레인저 The Lone Ranger>는 제작비가 무려 2억 5천만 달러나 투입된 액션 어드벤처입니다. 역시 시리즈물로 제작될 가능성이 무척 높은 블록버스터입니다.

“지금 나한테 복면을 써라, 그거요(You want me to wear a mask)?” 갓 부임해온 지방검사 존 리드(아미 해머)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존의 상대는 코만치 족 인디언 톤토입니다. 톤토가 이렇게 대답하는군요. “당신은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하오. 죽은 자는 적의 심장에 공포를 심어주니까요(Better to stay that way. Dead man strikes fear into the heart of his enemy).” 그렇다면 지금 톤토가 마주대하고 있는 존은 ‘죽은 자’란 뜻일까요? 그걸 알아보기 위해선 영화의 도입부를 먼저 들여다봐야 하겠습니다.

때는 1933년, 무대는 미 합중국, 동부와 서부를 잇는 철도 공사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텍사스에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국경수비대인 레인저들이 협곡에서 괴한들에게 습격을 받아 전멸한 사건입니다. 사건 직후 우연히 그곳을 지

나던 톤토는 일곱 시신을 발견해 매장해줍니다. 그러다가 아직 숨이 붙어있는 백인 한 명을 구해줍니다. 그가 바로 존입니다. 최근 텍사스 주 지방검사로 부임했던 존은 레인저인 형과 동행해 경찰 임무를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포함해 출동한 레인저는 모두 8명인데, 시신이 하나 부족하다는 걸 알아냅니다. 내부에 괴한들과 결탁한 공모자가 있었던 것이지요. 존은 자기를 구해준 톤토의 정체를 궁금해 합니다.

톤토의 정체를 공개하기 전,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살아난 존을 가리켜 톤토가 어떻게 표현하는지 잠시 들어 다볼까요? “신이 나에게 말해줬소. ‘걷는 영혼’이 나의 복수를 도울거라고 말이오(A vision told me a great Spirit Walker would help me on my quest).” 톤토가 존을 ‘걷는 영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가 유령처럼 활보하며 돌아다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여 ‘복면을 쓴 총잡이’인 ‘고독한 방랑자(lone ranger)’ 캐릭터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제 톤토의 정체를 본격적으로 공개할 차례군요. “나는 코만치 족 인디언이요. 최후의 ‘악령 사냥꾼’ 이죠(I am Tonto of the Comanche. The last of the windigo hunters).” 아니,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악령’ 이라뇨? 톤토는 어렸을 때 자기의 부족이 모두 정체불명의 백인에게 목숨을 잃었노라고 고백합니다. 심지어 그 백인은 어린 톤토가 목숨까지 구해준 자입니다. 철천지원수를 붙잡아 복수하는 게 그의 목표인데요, 사막에서 죽어가던 존을 발견해 구한 것이지요. 존은 매복해있던 괴한에게 공격을 받을 당시 악당이 형의 심장을 도려내 먹는 걸 목격했다고 증언하곤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어떤 인간이기에 그런 짓을 다 한단 말이오(What kind of a man does something like that)?”

이 대목에서 톤토의 원수는 식인 악당이라는 게 밝혀집니다. 그렇다면 과연 톤토가 ‘악령’ 이라 부르는 이 식인 악당의 정체는 뭘까요? 그런데 어느 모로 보나 이 ‘악령’은 거물급 악당으로 보이진 않는군요. 혹시 놈에게 막강한 배후가 있는 건 아닐까요? 그건 어머어마한 스포일러여서 개봉할 때까지는 그에 관한 정보를 가려두기로 합니다.

이제 톤토와 존은 공통의 목표를 앞세워 원수를 추격합니다. 존이 먼저 이렇게 제안하며 의지를 세웁니다. “나와 함께 힘을 합쳐 악당을 정의의 심판장에 세웁시다.” 그러자 톤토가 화답합니다. “정의는 내가 원하는 것이요(Justice is what I seek).” 둘의 호흡은 찰떡이겠지요? 웬걸요! 이때부터 둘은 끊임없이 충돌합니다. 왜일까요? 톤토는 원수를 붙잡으면 직접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반면 검사인 존은 심판을 법의 손에 맡기자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면서! “Wherever men unite into society they must quit the laws of nature and assume the laws of men. So that society as a whole way prosper.” ‘인간이 모여 사회를 만들 땐 자연의 법칙보다 인간이 만든 법이 우선한다’는 뜻이지요. 존 로크의 <통치론 Treatises of Government>의 일부를 인용한 것입니다. 과연 악당(혹은 악당들)은 붙잡혀 톤토에게 복수를 당할까요? 아니면 존에게 붙잡혀 법의 심판을 받을까요? 정답은 영화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론 레인저>의 감독은 고어 버빈스키입니다. <캐리비안의 해적> 시리즈에 참여했으며 애니메이션 <랭고>와 공포영화 <링>의 미국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제작자는 제리 브룩하이머입니다. <진주만>, <캐리비안의 해적> 시리즈 등을 만들었고, TV용 범죄 시리즈물 <CSI>의 제작자입니다. 각본은 <레볼루셔너리 로드>의 저스틴 헤이드가 썼습니다. 음악은 한스 짐머가 만들었습니다. 그는 <인셉션>, <다크 나이트 라이즈>, <라이온 킹> 등에서 음악을 담당했습니다. 제작회사는 월트디즈니사이며, 러닝타임은 약 150분입니다. **AF**

The Lone Ranger



ON AIR

Air Supply

동네 바보가 된 최정에 스파이

은밀하게 위대하게



2013
06

김수현 박기웅 아현우

원주 박해숙 김성균 고창석 장광 신정은 홍경인 이재경 박은빈 최우식 제은 이서연(연세대학교) 배윤 쇼박스(주)미디어유통서비스 제작 (주)MCMC 편집 최홍운 감독 장필수

CULTURE
36.5
Air-Supply



글
강명석
(대중문화평론가,
10asia 편집장)



사진
DAUM 영화



간첩 영화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고민

1999년 개봉한 영화 <쉬리>는 전국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한석규-최민식-송강호라는 세 흥행배우가 출연한 액션 블록버스터 영화라는 것은 물론, 남북 관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화제와 논쟁을 불러 일으켰기 때문이다. 남한에 침투한 북한의 특수요원이 평범한 여성으로 신분을 위장해 살아가면서 남한의 국정원 요원과 사랑에 빠진다는 설정은 당시로서는 생각하기 어려웠던 파격적인 스토리였다. <쉬리>가 기록적인 성공을 거둔 이후, 한국에서는 남북 관계를 조명하는 다양한 작품들이 등장했다. <웰컴 투 동막골>처럼 6·25의 비극을 다룬 작품이 엄청난 흥행 기록을 세우기도 했고, <간첩>처럼 고정간첩을 소재로 한 작품이 등장하기도 했다. 최근 엄청난 흥행세를 보이고 있는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는 이런 남북 관계 소재의 영화 중 유난히 튀어 보인다. <쉬리>가 발표된지 14년 후에 나온 이 작품은 <쉬리>처럼 시종일관 무겁지 않다. 오히려 영화의 대부분은 코미디가 대부분이다. 남한에 파견된 최고의 특수요원 원류환(김수현)이 남한의 고정간첩 역할을 하기 위해 동네 바보로 살아가야 한다는 설정 자체가 코미디다. 원류환은 간첩 활동을 하기 위해 동네 꼬마들에게 맞는 것도 참고, 거리에서 사람들 앞에서 대소변을 보는 것도 감수한다.

이런 코믹한 요소에 이른바 '꽃미남' 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장면들도 집어넣는다. 원류환이 옷을 벗고 몸을 보여주고, 리해진(이현우)은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겠다면서 와이셔츠 위로 물을 뿌리기도 한다. 여성 팬들을 위한 이른바 '서비스 컷' 들인 셈이다. 여기에 리해진은 맹목적인 만큼 원류환을 추종하고, 원류환의 손길이 자신의 몸에 닿을 때마다 부끄러워 한다. 여기에 작품속 캐릭터들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지만 북한에서 어린 시절부터 엄청난 훈련을 받고 자란 특급 전사라는 이유로 상상을 초월한 전투력을 보여준다. <쉬리> 시절 주인공들은 30대의 나이로 분단 현실의 비극으로 인한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었다. 반면 <은밀하게 위대하게>의 간첩들은 소년 같은 외모로 멋진 액션과 그들 사이의 애정을 드러낸다. 이 영화에서 남북 관계는 남자 주인공들의 캐릭터를 부각시키기 위한 장치에 가까운 셈이다. 남북 관계가 화해무드에 접어들면서 특수요원인 이들이 모두 자결해야 한다는 설정 역시 지극히 단순하다. 남북 관계를 흥행을 위한 소재로 사용하는 것이 무작정 나쁜 일은 아니다. 다만 <은밀하게 위대하게>는 남북 관계를 철저하게 소재로만 이용할 뿐, 이에 대한 캐릭터의 고민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 영화의 원작인 동명

의 웹툰은 같은 이야기를 하되 어린 나이에 전투 기계처럼 키워진 캐릭터의 이야기가 펼쳐지면서 깊은 고민을 했다. 자신이 왜 이런 처지로 키워져야 하는지, 생사를 건 훈련 속에서 폭력 외에는 대화나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방법을 모르며 자란 자신의 10대 시절에 대한 고통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영화로서의 <은밀하게 위대하게>는 이런 요소들을 모두 뺀 채 오직 코미디, 액션 또는 젊고 잘 생긴 배우들의 외모만을 강조한다. 편하게 웃고 보기에는 무난할 수도 있다. 게다가 드라마 <해를 품은 달>로 톱스타가 된 김수현이 바보와 특수공작원을 오가면서 어지간한 배우들이 쉽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액션 연기까지 선보이니 굉장한 구경거리다. 여기에 개봉 첫 주와 둘째 주에는 독점에 가까울 만큼 엄청난 스크린을 확보했으니 흥행이 잘 된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다. 흥행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분단 현실이 낳은 비극을 소재로 하면서도 그에 대한 고민은 거의 무시하고, 그에 희생된 개인들의 이야기 역시 구경거리로 삼는 것이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상관 없지만, 최소한 <쉬리> 때 만큼의 고민은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 **AF**



글·사진 제공
이예진
(MBN 정치부
출입기자)



윤미영
(프리랜서
방송작가)



사진출처
DAUM 영화

PREVIEW

여름, 연극에도 서스펜스는 있다

연극 <우먼 인 블랙>

영국의 유명 일간지 <가디언>이 선정한 세계 5대 공포소설 중 하나인 <우먼 인 블랙>은 영국작가 수전 힐의 동명소설을 각색한 연극이다. 끔찍한 과거의 사건으로 수년간 악몽과 불안에 시달리는 아서 킵스가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과거의 사건과 다시 마주하는 과정이 마치 실화같다.

스산한 늪과 안개, 흐느끼는 바람에 갇힌 외딴 집, 그곳에서 만난 검은 옷의 여인. 모성애로부터 시작된 증오마저 연민이 되는 탄탄한 스토리와 섬뜩한 여운의 반전이 공포의 정점을 찍는다. 모처럼 스크린으로만 만났던 공포물을 무대에서 만날 수 있는 보기 드문 기회가 될 것이다.

빛과 소리만을 이용한 세련된 무대 기법을 내세우며 1987년 초연해 현재까지 누적 관객 약 800만 명을 기록하며 웨스트엔드 최장기 흥행작으로 등극한 연극 <우먼 인 블랙>. 영화 <건축학 개론> 등에서 활약한 김경민과 현재 뮤지컬 <빨래>로 인기몰이 중인 김보강 등 대학로 실력파들이 살아 움직이는 스텔러를 연기한다.

- 기간 : 9월 22일
- 장소 : 서울 대학로 동숭아트센터 소극장
- 가격 : 전석 3만원
- 홈페이지 : <http://www.dsartcenter.co.kr>



세계 3대 애니메이션 제작사의 비밀 설계도가 온다 <스튜디오 지브리 레이아웃展>

<스튜디오 지브리 레이아웃展>은 '이웃집 토토로'와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하울의 움직이는 성' 등을 제작한 스튜디오 지브리의 역사를 아우르는 1,300여 점의 '레이아웃'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다.

레이아웃은 감독이 자신의 연출 의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작하는 것으로 이미지뿐만 아니라 제작에 필요한 모든 기법이 담겨 있는 애니메이션의 세부적인 설계도이다. 100% 수작업으로 그려지는 레이아웃에는 애니메이션이 완성되기까지 애니메이터들이 쏟은 열정과 영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자유로운 상상력이 담겨 있다.

특히 이번 전시는 스튜디오 지브리가 위치한 일본 이외의 국가에서 처음 열리는 전시로, 다카하타 이사오 감독과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스튜디오 지브리를 설립하기 전 제작한 '알프스 소녀 하이디'와 '엄마찾아 삼만리', '미래소년 코난' 등 국내 팬들에게도 익숙한 애니메이션의 레이아웃도 선보인다.

자연과 인간이라는 보편적인 주제를 손으로 직접 그리며 세계인의 이목을 사로잡은 스튜디오 지브리. 그들이 월트 디즈니, 픽사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던 귀여운 상상들과 마주하는 일리아말로 당신을 위한 힐링타임이 될 것이다.

- 기간 : 9월 22일까지
- 장소 : 예술의 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
- 가격 : 1만 5천원(현대카드 결제 20% 할인)
- 홈페이지 : <http://www.superseries.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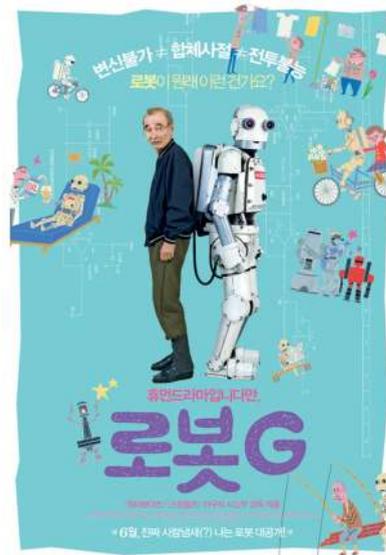
영리한 장르영화의 모범답안

영화 <더 콜>

사이코패스 범인에게 납치된 소녀와 소녀를 구출하려는 정의의 주인공이 숨막히는 추격전을 벌이는 영화 '더 콜'. 이 영화는 소재부터 진행방법까지 전형적인 범죄 스릴러 영화의 공식을 착실하게 따르고 있다. 게다가, 주인공을 911 전화 상담원으로 설정해서 납치부터 구출까지의 전 과정을 관객에게 고스란히 생중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더욱 흥미를 끌고 있다. 이것은 범죄 스릴러 장르 영화를 선택하는 관객들이 원하는 짜릿한 스릴과 공포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불필요한 설명이 전혀 없는 단순 명료한 스토리와 숨돌릴 틈을 주지 않는 스피디한 진행까지 깔끔하게 완성된 영리한 범죄 스릴러 영화.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할 만하다.

+ 99%가 공식대로 진행되지만 전혀 색다른 마지막 1%의 반전 결말. 전형적인 결말이 아니라는 점은 참신하다.

- 결말이 색다르다는 점은 칭찬할 만하지만 전체적인 스토리와 연결되지 않는 생뚱맞은 결말임은 확실하다.



정이 넘치는 일본식 코미디

영화 <로봇G>

최첨단 철갑 수트를 두른 아이언맨 이후 또 다른 로봇인간의 이야기가 스크린에 등장했다. 아이언맨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 로봇은 그냥 로봇의 껍데기일뿐.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점. 말하자면 로봇 모형의 탈일뿐이다. 더구나 그 속에 들어간 인간은 70대의 노인. 짐작하겠지만 <로봇G>의 영화 장르는 SF가 아니라 코미디다. 망가져서 쓸모없어진 로봇 껍데기와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노인이 결합되어 갑자기 영웅이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과 예측 불가능한 에피소드를 통해 영화는 따뜻한 웃음과 몽클한 공감대를 형성한다. 물론 다소 개연성이 떨어지는 억지스런 상황들이 벌어지지만 어쩐지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정이 넘치는 영화.

+ 한국에서 유난히 반응이 좋았던 <스윙걸즈> <워터보이즈>의 감독 야구치 시노부의 변함없는 감성

- 큰 웃음을 기대하기 힘든 특유의 일본 코믹 감성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이 영화는 더 이상 코미디 영화가 아니다. **A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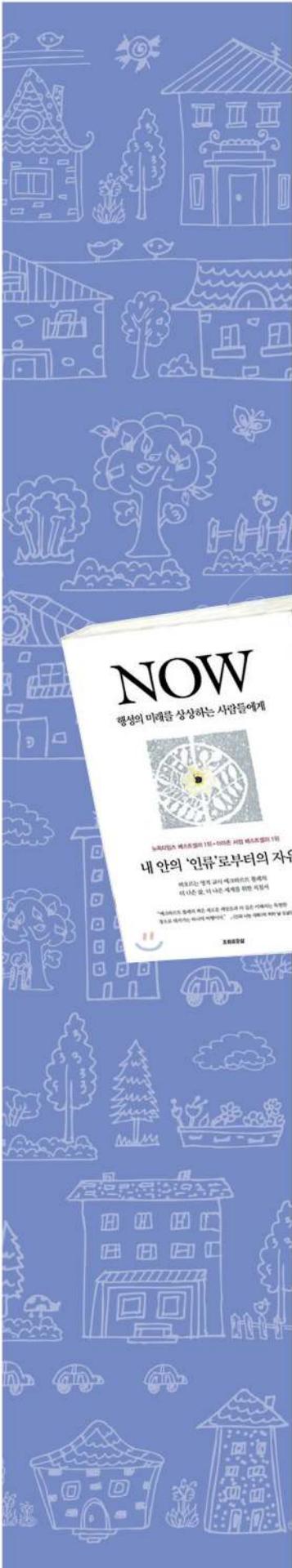


글
대령 강성구
(공군본부
공보과장)



사진출처
DAUM 책

책마을



지난 주 저는 부대 인근의 고즈넉한 숲속에 텐트를 치고 혼자 야영을 했습니다. 여행도 캠핑도 가끔은 혼자 해보는 것이 좋은 이유는 대화상대가 없을 때 우리의 오감과 감수성이 더 예민해지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한밤, 숲 속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들 위로 반짝이는 별들을 뚫어지게 보고 있으면 시간이 흐를수록 별의 숫자가 늘어나는데 마치 꼬마전구가 한 두 개씩 켜지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눈이 어둠에 계속 익숙해지면서 별들을 더 인지하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은 어쩌면 우리의 초기 선조들과 수만 년의 시간적 격차가 있지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몇 안되는 대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별은 숫자로도 거리로도 우리 인간의 이해 범위를 넘어서 우주공간을 채우고 있습니다만 별을 포함한 우주의 모든 구성 요소들은 빅뱅의 순간에 모두 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즉 인간을 포함해서 물질계를 이루는 모든 것들은 같은 포대에서 나온 동포同胞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주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時空의 바다라 해도 그것은 빅뱅이라는 한 시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서로 유기적인 연결망을 가지고 있고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질학자나 천문학자들에 의하면 지구상에 지금과 같이 수많은 생명들의 향연이 펼쳐지는 때는 46억년 지구역사에서 그리 긴 시간이 아닐 것이라고 합니다. 마치 아주 짧은 평화의 시간에 우리 인간을 비롯한 생명들이 진드기처럼 지구에 붙어 있다고 묘사하는 것이 정확할지 모르겠군요. 지구에 출현한 초기 생명체들이 우리의 상상을 넘는 긴 시간동안 얼키고 설키면서 새로운 생명체로 진화의 수레바퀴를 돌려 그 마지막 단계에 인간을 내어놓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연하게 발생된 것이 아니라는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천지자연의 작동원리가 너무나 정교하고 의도적이기 때문입니다. 태양계가 우리 은하의 중심쪽으로 조금만 더 가까웠어도 우리는 방사능에 샤워하고 전 생명체가 멸종했을 것이고,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조금만 가깝거나 멀어도 기후는 생명이 살 수 없는 극한의 온도가 되었을 것이고, 지구가 자전을 해서 자기장을 만들어 내지 않는다면 태양풍에 지구는 말라버렸을 겁니다. 또한 덩치 큰 목성이 뒤에서 버텨주며 엄청난 중력으로 먼 우주에서 날아들어오는 수많은 운석들을 당겨서 그 표면에 주저 앉혀 주지 않았다면 지구는 벌써 반쪽이 났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왜 이런 은혜 속에 지구별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일까요? 이 책은 바로 그 이야기, 즉 우리 인류의 우주사적 임무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거창하다구요? 그런데 그 거창한 이유를 알아야 개인적 문제를 풀고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첫 장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가볍게 흘러버릴 내용이 한 줄도 없다고 감히 말하고 싶군요. 한평생 살면서 한 두 번 만나기 쉽지 않은 귀한 책입니다. 정확히 원인은 모르지만 늘 불안과 걱정, 그리고 인생의 무게에 고통받는 사람들(아마 인간 모두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에게 유용한 메시지를 줄 것으로 믿습니다. 2008년 발간된 책이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도서관들을 뒤져서 꼭 읽어 볼만한 책입니다. **AF**



월간 「공군」 7월호를 잘 읽고 문제를 풀어 독자퀴즈 엽서 뒷면에 답해 주세요.

정답엽서 마감일 : 7월 31일까지

1. Korean Fighter eXperimental의 약자로, 보라매사업이라고도 불리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2. 보라매공원의 서문 언덕에 있는 탑으로, '성무인을 길러내는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사관생도들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헌시'가 새겨져 있는 것은?
3. 이용근이 독립전쟁을 위해 조종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입학하여 비행을 배운 미국 민간비행 학교는?

5월호 독자퀴즈 정답 및 당첨자

정 답 1. 안성기 2. 로카피스 3. AIM-7

퀴즈 당첨자 서울 중랑구 **기효성** ● 충북 청원군 **장현웅** ● 대구 수성구 **이지영**
전북 장수군 **양서정** ● 전남 여수시 **차수민**

〈월간 「공군」 독자들을 필자로 모십니다〉

보내실 곳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서함 501-309
정훈공보실 미디어영상팀 월간 「공군」 담당 (우편번호 321-929)

이메일 najung21@hanmail.net(인터넷) najung21@af.mil(인트라넷)

전화번호 02-506-6943 / 042-552-6943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 - □□□□



받는 사람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군사우체국 사서함 501-309호
월간 「공군」 편집실
☎3211-9219



월간 「공군」 퀴즈 이벤트 응모는 QR 코드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하세요.

간접 · 테러비 · 보안스피어 · 사이버테러 · 군사보안
신고 · 상담은 **공군**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37번
(온라인 신고 www.dsc.mil.kr)

2013
July
Vol.421

백일장 여덟 번째 주제
노래



P
O
S
T
C
A
R
D

담벼락 백일장 제8회 주제는 '노래' 입니다.
노래와 관련한 독자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을 기다립니다.

인트라넷(E-mail) najung21@af.mil
인 터 넷(E-mail) najung21@hanmail.net

월간 「공군」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 월간 「공군」은 □□이다.

.....

◎ 월간 「공군」 7월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었던 글은?

.....

◎ 월간 「공군」에서 다뤘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은?

.....

.....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

.....

7월호
퀴즈 정답

1. _____

2. _____

3. _____



공군지 독자퀴즈 상품 전격 교체!
독자퀴즈에 당첨되신 5분께
멀티비타민 '네이처 밸런스'를
선물로 드립니다.
많은 응모 부탁드립니다!

L

Letters to the editor



기호성 서울 중랑구 월간「공군」, '만화책 신간'이다. 나오자마자 바로 다 읽어버리고 다음 호를 기다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대학생부 이호수 상병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저도 24살 여자친구와 4년째 교제 중인 군인인데, 이호수 상병의 패기에 박수를 보내며 두 분이 오래오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매회를 거듭하며 발전하고 있는 공군지 항상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웅 충북 청원군 월간「공군」은 '섬표'이다. 정신없는 군 생활 속에서 저에게 잠시 쉬어가는 하나의 섬표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한건수 사무관 가족편'을 재미있게 봤습니다. 16비로 가기 전에 공사 수송대대에서 근무하셨는데, 이렇게 월간「공군」에서 다시 뵙게 되어 너무 반가웠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항의원에 대해 소개하고 싶습니다. 취재 한번 와 주시죠?



이지영 대구 수성구 월간「공군」은 '노래'다. 가사말처럼 공군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멜로디와 같이 더불어 감성까지 섬세하게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네 쌍둥이 키우는 기상단 양미혜 주무관 가족편'을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가족의 완성은 아이들이라는 말이 출산을 꺼리는 현 시대에 교훈이 될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늘 수고하시는 편집진 여러분 감사합니다.

양서정 전북 장수군 월간「공군」은 '구름'이다. 심심한 하늘을 지켜주는 구름과 같이 비행기를 타고 심심한 하늘을 재미난 하늘로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여행코너였던 '청춘예찬, 내일로'를 재미있게 봤습니다. 요즘 들어 친구들과 함께 기차여행을 떠나고 싶었는데 기차여행 관련 기사가 나와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 호에도 좋은 정보를 많이 가져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차수민 전남 여수시 월간「공군」은 '탤런트'다. 요즘 최고 잘나가고, 무엇이든지 잘하는 재주꾼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국민배우 안성기님을 만나다' 기사가 좋았습니다. 안성기 씨가 정말 친숙한 아버지 같은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두 아들을 모두 공군에 보냈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배우로서도 더 멋진 활동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성기 씨 힘내세요!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영원한 빨간마후라
영화배우 **신영균** 인터뷰
28페이지!

“목숨 걸고
빨간마후라 찍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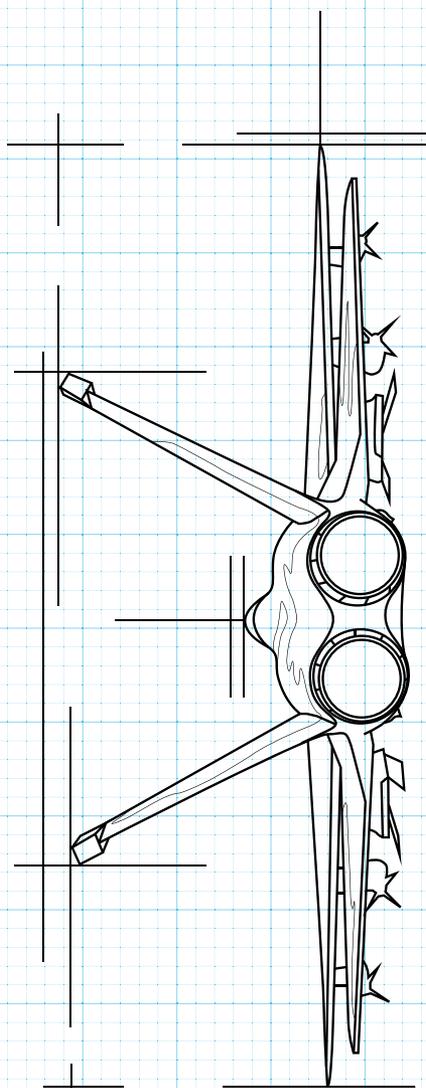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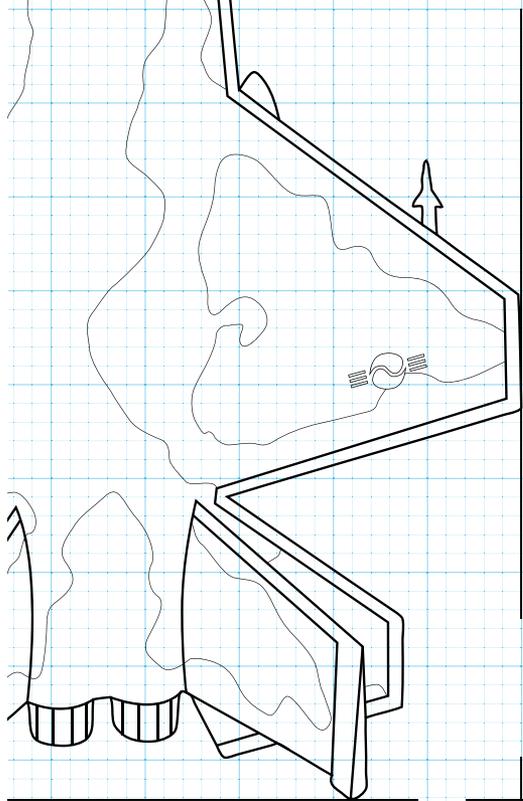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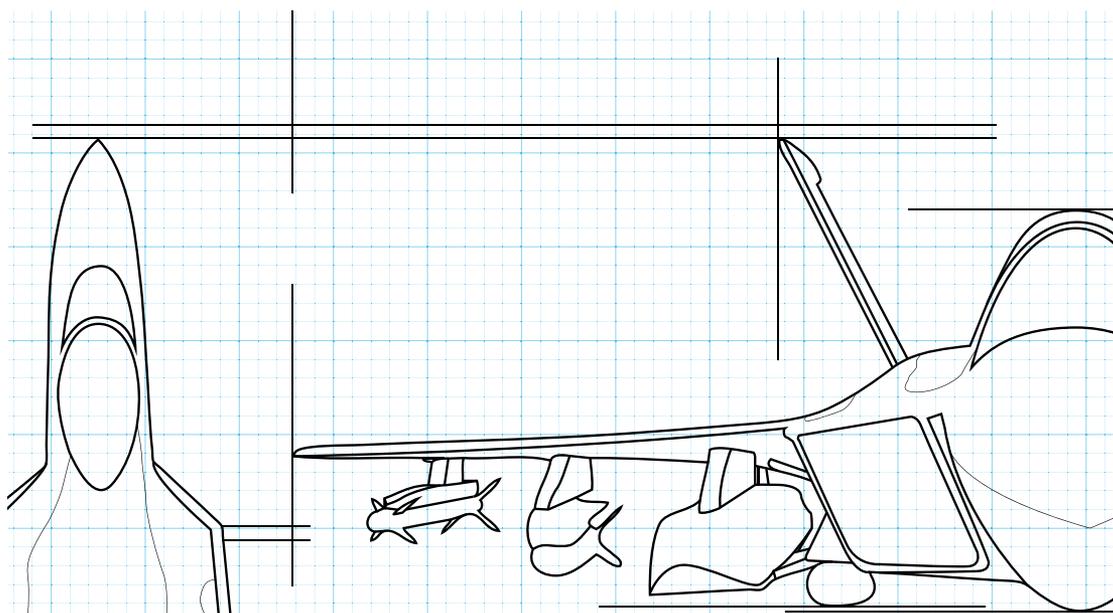
공군 매거진 블로그에 재미있는 소식들이 가득!
공감하면 할수록 재미있는 공군

<http://afzine.kr>

<http://afplay.kr>



대한민국공군



KF-X

since 2001

